

이사 '전문성' 확보돼야

9명 이사선임 예정 ... 구성 다양화·후보추천권 명시해야

동국학원 이사 9명의 임기가 다음달 22일 만료돼 10월 중순 열리는 이사회에서 새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번 이사선임은 전체 이사 13명 중 과반수 이상이 바뀐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불교병원 개원, 제3캠퍼스 건립, 건축 100주년 등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이사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계종 계과간 대립하는 등 이사 추천권 등에 대해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동국학원 정관 24조는 '이사정인 13인 중 9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승려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체 이사 중 3분의 1을 교육계 인사로 한다'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스님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을 무조건 교육계 인사로 해야 한다. 이는 결국 이사 구성이 다양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동국학원의 경우 아직 개원하지 않은 일산 불교병원을 비롯해 부속병원 5개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 등 다양한 방면의 이사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사의 3분의 2인 스님이사를 추천하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위) 법을 살펴보면 '학력 및 교육의 경험과 원력을 고려하고, 종회의원에 준한 자'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사 구성은 결국 재단 운영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진다.

때문에 '법인이 재단 운영을 맡고 있는 만큼 종관위가 이사추천을 하기 전 법인과 재단현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종관위법 제3장 4조는 '이사추천은 법인과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이사후보 추천 시기와 추천 인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만 교환할 뿐이다.

따라서 '협의'라는 문구를 구체화해 어떤 방면의 이사 총원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세대의 경우 △교단(장로회·감리회·장로회·대한성공회) 4인 △동문회 2인 △사회유지(출신2인·협력교단 교계인사 2인) 4인 등 이사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인사위원회 △재정관리위원회 △의료위원회 등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종관위와 총동창회 사이에서 이사후보 추천권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관을 살펴보면 '스님이사'의 경우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고 밝혔으나 재가이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국 이번 이사후보 추천 과정에서 종관위는 종관위법(동국대학교의 이사후보를 복수추천할 수 있다)에 따라 재가이사 추천권까지 주장하고, 동창회는 "재가이사의 경우 관례적으로 동창회에서 추천해 왔다"며 대립했다. 따라서 이사추천과 관련한 종법과 정관을 통일시키고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동국학원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무산되고 재단정임금이 미비해 책임감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는 학교 운영에 전문성과 애착을 가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55@donggu.ac.kr



즐거운 땀방울 ...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는 지난 2일부터 4일간 총복 재단 일대에서 농민학생연대활동(이하 농활)을 진행했다. 농활에 참가한 학생들은 고추를 따는 등의 농사일을 도우며 농촌의 현실을 함께 고민했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ac.kr

직원 교육 체계화 ... "행정능력 강화할 것"

사이버연수원 개관·평가방법 세분화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연수원이 개관하는 등 교직원 교육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총무처(처장=권용범)는 이번 학기 △기본소양 △직무역량 강화 △자기개발 등 교육 방향을 세분화하고 건학이념 교육, 위탁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천종 총무팀장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교육을 체계화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지난 1일 개관한 사이버연수원은 자기개발 과정의 하나로 실무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설과목은

어학, 정보화 등 4개 분야의 50여 과목으로 원하는 강좌를 신청할 경우 학교로부터 지원 받아 수강하는 제도이다. 이는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이 가능하며, 과목을 이수할 경우 인사에 반영돼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비정기적으로 시행해 오던 정보화 교육·워크숍 등의 시계화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직원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본교 또한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본교 홈페이지 '직원교육'란에 △의무에서 진행되는 교육 안내 △도서요약본 △상담코너 등을 개설했으며, 앞으로 해외행정연수·타 대학 직무 벤치마킹을 확대하고 직원들이 소모임을 조직해 연구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각 대학마다 행정전문가로서 교직원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해외연수 등을 확대하는 등 교직원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본교 또한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부
dmz@donggu.ac.kr

학위 청구논문 심사원서 접수

2003학년도 전기 석·박사 학위 청구논문 심사원서 접수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대학원 교학과에서 실시된다.

석사과정은 △심사원서 △학과주임교수 추천서 △이력서 등과 함께

심사료 6만원을, 박사과정은 △연구실적조사 △성적증명서 △박사학위 신청서 등과 심사료 39만원을

함께 접수해야 한다. 청구논문 심사는 오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의 한 관계자는 "논문제출 마감기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의 한 관계자는 "논문제출 마감기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의 한 관계자는 "논문제출 마감기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의 한 관계자는 "논문제출 마감기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

전자상거래·컴퓨터게임 등

대우정보시스템, LG CNS 등이 후원하는 '제1회 정보산업대학 학생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전' 접수가 오늘(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실시된다.

수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소프트웨어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정산대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모집 분야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터넷·인트라넷 응용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컴퓨터 게임 등이다.

심사는 △독창성 △실용성 등을 기준으로 하며,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출품작에 한해서 졸업논문, 졸업시험 또는 졸업작품으로 인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정산대 교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인회계사 22명 합격

평균 16:1 경쟁률

제38회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본교 학생 22명이 합격해 전국에서 12번째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번 시험은 평균 16: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보다 응시자가 1천여명 정도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학사의 김갑순(회계학과) 담당교수는 "타 대학에 비해 응시생이 적은 만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면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산고시학사 추가입실자 모집

졸업생 신청 가능

계산고시학사 오는 12월까지 5명의 추가 입실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사법고시 지원자로서 재학생을 비롯한 졸업생도 가능하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단, 최근 계산고시학사에서 실시한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한 경우 우선선발 할 예정이다. 입실자에게는 △전국모의고사 무료 응시 △지적화상제 △유명장사 초청 강연회 무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본사사령

◇ 임 정기자
▲ 황주상(불교대1)
▲ 김지은(사과대1)
▲ 김지희(사과대1)
▲ 설윤진(사과대1)
-이상 10월 6일자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10월 13일자와 20일자는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제1375호)은 10월 27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제2회 불교생태학 세미나 개최

'자연, 환경인가 주제인가' ... 오는 14일 덕암세미나실

불교문화연구원(원장=서운길·불교학)이 제2회 불교 생태학 세미나를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자연, 환경인가 주제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자연을 불교·과학·철학 등 각각의 학문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1차 세미나가 불교생태학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떤 위치인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세미나는 철학, 생물학, 윤리학 등

각각의 학문적 입장에서 자연의 정의에 대해 접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토론주제와 발표자는 다음 <표>

학 문	발 표 자	주 제
불교학	박경준(불교학) 교수	불교적 관점에서 본 자연
윤리학	김종욱(BK21) 교수	윤리학에서 바라본 자연
물리학	장희연(녹색대학 총장)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
생물학	최재천(서울대 생물학) 교수	불교와 진화생태학의 만남
동양철학	유홍우(철학) 교수	동양철학에서 자연은 어떤 존재인가
서양철학	최인숙(철학) 교수	서양철학에서 본 자연
종교학	윤영혜(불교학) 교수	불교와 기독교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

각각의 학문적 입장에서 자연의 정의에 대해 접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운길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은 "학제간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주제와 발표자는 다음 <표>와 같다.

보리수

자기를 사랑하는 법

사람은 누구나 타인을 사랑하고, 또 타인으로부터 사랑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관계 속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이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한 행위를 멀리하는 것이다"고 하시면서 선

(善)을 행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악행을 저질러 타인을 해치게 되면 이는 다시 업으로 돌아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다. 결국 '타인을 해침=자신을 해침'이 되고 이는 '자기 사랑'이 아닌 '자기 미움'이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타인을 해치는 악행 중의 하나는 바로 '명리(名利)를 구하는 일'이다. 특히 인을 속이고,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기꾼과 진배없다. 명리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명성과 이익을 얻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타인들을 겨우 자신의 출세 도구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것처럼, 혹은 자신이 아니면 안되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그 이면에는 군중의 심리를 자극하고 그들을 충동질해서 자신의 명리만을 추구하는 악한 이기심이 존재한다. 이는 앞서 말했던 '타인을 해침'에 속하고 결국에는 다시 '자신을 해침'과 '자기 미움'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헛된 명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부처님께서는 명리를 구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경계하시며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드셨다.

'파초가 열매를 맺으면 스스로 파멸을 초래한다. 또 대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시들고 만다. 암덩어리가 새끼를 배면 죽는다고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사람은 명리를 얻으면 전락(轉落)한다.' 명리에 대한 유혹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늘 가슴깊이 품고 살아야 할 이 야기일 것이다. 김소운 불교문화연구원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남의 정답을 집는 동안 당신의 양심을 놓칩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컨닝만을 믿고 여유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점이 성적으로 기록된다면 지성은 양심으로 기억됩니다.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6~7면 동대인 연애 경향 분석

실문조사를 통해 본교 학생들의 '연애풍속도'와 혼전 동거와 혼전 순결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다. 또한 남녀의 연애 심리를 알아본다.

5면 탈근대의 노마돌로지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창안한 지식체계, 노마돌로지에 대해 알아본다.

11면 온라인 게임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대발위 구성·장학기금 조성 논의중

논의자리 예년보다 증가... 학생참여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 학자합의안 이행 점검

지난 4월 학교측과 제35대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가 △등록금 8%인상과 납부금액 중 2% 환원 △구도서관 리모델링 논의 시 학생참여 보장 △대학발전위원회(이하 대발위)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과 총학생회의 간담회가 열려 합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올해와 지난해 학자합의안의 이행여부를 점검해본다.

▲학사제도 개편 논의=학교측 전환을 비롯해 전반적인 학사제도 개편이 단행된 올해 학교측과 학생회는 학사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논의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채 학교측이 일부

단과대의 학과제 전환을 결정함에 따라 학생회가 반발하고, 학과제 시행이 유보된 단과대의 전환을 요구했으나 논의는 다음해로 넘어갔다. 따라서 다음해 논의과정에 학생참여가 보장돼 합의안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과제 전환이후 학사제도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절대평가제 도입과 학생요구교과목 개설 등 학생의견을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발위 구성=지난해부터 이어온 등록금정책협의회의 구성의 연장선으로 합의안 중 학교측과 학생회의 의견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학교측은 "공식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발전을 위한 논의자리를 갖도록 노력한다는 의미"라며 "공식적인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학내 의사분규를 조

장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학생회는 "기구를 구성해야 등록금정책 등 학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정례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등책협과 대발위 구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돼온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한 학교측과 학생회의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배치 논의시 학생참여 보장= '법대이전'이라는 지난해 합의안은 법대가 구도서관 1층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 이행됐다. 또한 공간배치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학교측이 구도서관 리모델링 설계도를 학생회에 공개하는 등 공간배치 논의과정에 학생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장학기금 조성=인상분 1%인

약 7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합의했으며, 이달 중으로 논의를 마무리할 경우 학기당 10~20여명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급시기와 관련해 학교측은 다음해 1학기 주당하는 반면 학교측은 이자조성을 위해 다음해 2학기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는 총장 취임 첫해인 만큼 학교측이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의견차가 뚜렷한 대발위 구성에 대해 양측이 입장을 조율하고, 다음해 진행될 학과제 전환과 관련한 논의에 학생참여를 보장해 지속적으로 합의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שמ인 기자
qwertewq@dongguk.edu

회전무대

보건소를 찾아라

○...지난주 무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학생들 중 일부는 고혈압을 호소했다는데,

알아보니 본관 2층에 위치한 보건소를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건강검진기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본관에 출입하는 만큼 간이 안내판 등을 미리 설치해 학생들의 혼란을 줄였어야 하는 게 아니었는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월, "무료건강검진, 보건소와 통하였느냐?"

다기능 나무

○...동약로 주변 나무들은 학내 청정한 환경 조성 외에 다른 기능이 추가되었다는데,

이유인즉 현수막 걸이대의 갯수가 적어 주변 나무를 현수막 걸이대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학생들이 현수막을 많이 거는 장소인 만큼 걸이대의 수를 늘려 나무가 상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월, "다전공 시대, 동약로 나무도 예외일 수 없다"

미스터리 연구소

○...온라인에서 본교 부속 연구소 현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데,

알아보니 홈페이지에 링크된 연구소 대부분이 연결되지 않거나 개설된 홈페이지의 경우 자료가 업데이트 안됐기 때문이라고.

홈페이지가 학내구성원과 외부인에게 연구소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월, "연구소 현황, 그것이 알고 싶다(!)"

간판 없는 식당

○...학교 주변에 있는 모 음식점이 해화관 옆 벤치에 분점(?)을 차렸다는데,

이유인즉 음식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학생들에게 식사 주문을 받고 후식까지 제공하는 것이라고.

학내 정해진 공간 외에서 상행위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휴식공간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의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월, "우리학교 식당 4호점, 해화관 옆 야외식당 오픈(!)"

건학 100주년 사업회 선상규 본부장을 만나

"구성원 참여 이끄는 것이 중요"

슬로건 공모·D-900일 행사 준비 등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건학 100주년 슬로건을 공모하는 등 건학 100주년 준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선상규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 본부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찬, 행사 등 7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00주년 행사를 기획하는데 가장 중점되는 것은,

=학내·외 모든 동국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건학100주년 슬로건 공모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의 제안엽서를 받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 홈페이지에 '건학 100주년 퀴즈판'을 개설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등 모든 행사를 구성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지난 18일 발족된 기획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경주캠퍼스 교직원으로 구성된 점도 지리적으로 먼 경우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획분과위원회의 역할은,

=그동안 사업본부가 행사, 심의 등 모든 역할을 담당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기획분과위원회가 발족해 모든 사업의 심의를 담당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앞으로 편

-오는 11월 20일이면 건학 100주년 D-900일을 맞게 된다. 준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계획은,

=학내·외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해 지난날에 대한 평가를 건학 100주년 이후 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오는 11월 18일 장충체육관에서 고3 재학생 약 4천 500명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진행해 학교 홍보와 함께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본교 연예인을 초청해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등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황שמ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임시학생대표자회의 열려

구도서관 공간문제 찬반투표 ... 내일(7일) L501

구도서관 공간배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임시학생대표자회의가 내일(7일) 오후 5시 동국관 L501에서 열린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구도서관 2층에 불교대를 이전하고 2층 컴퓨터실습실 확대'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영빈(경영4) 총학생회장은 "불교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적인 논의를 방지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대측은 구도서관 공간배치는 전체 학생들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견정족수를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칙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됨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총운위가 제시한 안이 부결될 경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논의를 하게 된다.

한편, 불교대는 구도서관 2층으로 이전하려는 이유를 밝히며 지난 9월 초부터 학생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측이 공간배치 기본안을 확정된 지난 5월부터 각 단과대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구도서관 공간배치 논의가 이번 대표자회의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긴장? 긴장! ... 무료 건강검진이 지난 달 29일부터 4일 간 보건소에서 진행돼 약 2천명이 △진염 항체검사 △혈압측정 등 7종류의 검진을 받았다. 검사결과를 오는 16일부터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발송된다.

최שמ인 기자 qwertewq@dongguk.edu

동아리 가을축제 개최

오는 22일부터 3일 간 전시회·공연 등 진행

동아리 연합회(회장=권준일·토목3) 축제(이하 동연제)가 오는 22일부터 3일간 '야! 다(多) 모여!'라는 모토로 학내 곳곳에서 열린다.

동연제는 총 13개의 동아리가 참여하며 △전시회=TIME, 자연과학연구회, 만화열, 동국문화회 등 △공연=현어울, 검도부의 행사가 팔

정도와 중앙 도서관 앞에서 진행된다. 또한 △MASC=오는 23일 학림관 소강당 △기우회=총장배 바둑대

회, 심우장 옆에서 진행된다. 폐막식은 24일 오후 6시부터 만해광장에서 열리며 지난해 락 중심에서 벗어나 통기타,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마련될 예정이다. 초대가는 이적과 천진일 밴드이다.

이와 관련해 권준일 동연 회장은 "반미·반전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보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 임시열람실 개방 지하 3, 4층 300석 마련

중앙도서관(관장=최인숙·철학, 이하 중도)이 중간고사기간 발생하는 열람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6일)부터 임시열람실을 개방한다.

임시열람실은 중도 지하 3, 4층에 위치했으며 4인용 책상 75개로 총 300석이 마련되었다.

개방은 주말을 포함해 오는 25일까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한다.

단과대 축제 열려 경영대·생자대·사범대

경영대가 '동학한마당'을 오는 6일부터 진행한다. 행사는 △6~8일=농구, 탁구, 팔씨름 △7~8일='SWAT', '이탈리안 잡' 등 상영 △9일=장기자랑, 중앙동아리의 공연이다.

생자대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해화관 앞에서 '풍년제'를 실시한다. 행사 일정은 △6일=과 대학농구대회 결승, 만해광장 △7일=일산 학교농장에서 고사 △8일=가요제, 주점이다.

또한 사범대가 오는 22일부터 3일간 학림관 앞에서 '학림축전'을 개최한다. 행사 내용은 △이락 파병 반대 선전 △축구, 피구 등 체육대회 △노래자랑 △

스타크래프트 대회 △페이스 페인팅 등이다.

학복위, 아르바이트생 모집 하숙집 정보 수집 등

학복복지위원회(위원장=이안희·식자3, 이하 학복위)가 오는 20일부터 5일간 '남산택리지' 제작을 위한 아르바이트생 10명을 모집한다.

'남산택리지'는 학교 주변 하숙집, 자취집 등의 정보를 담은 책자로 아르바이트생은 2인 1조로 나뉘어 오는 25일, 26일 학교 주변을 탐색하며 책자에 실리게 될 정보를 수집하고 일당 5만원을 받게 된다. 단,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한 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책자는 오는 겨울부터 2004 학년도 개강 전에 배포될 예정이다.

음식배달 오토바이 통제 면학분위기 조성 위해

학내 음식배달용 오토바이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총무처(처장=권용범)는 학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6일)부터 음식배달용 오토바이를 교문 앞에서 정차시킨 후 도보로 배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학 1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오는 2006년 동국대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동국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건학 100주년 기념 슬로건'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의의

2006년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동국 100주년을 기념하고 전 동국인이 공통된 목표를 향해 공동의 이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동국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큰 뜻이 있다.

2. 슬로건 내용

가. 건학 100주년 기념 나. 공통된 목표를 향한 공동의 이념을 가질 수 있는 내용 다.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 예시) 밝은 동국 맑은 동국

3. 응모 대상 : 전 동국인

4. 접수처 :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 (E-mail) dgu100@dongguk.edu(발신자 및 연락처 명기)

5. 접수 기간 : 2003. 10. 31까지

6. 선정 방법 :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 심사위원회 심의

7. 당선 발표 : 예정 2003. 11. 17(월) 동국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dgu.edu)

8. 시상

가. 대상 : 1명 (50만원 상당) 나. 최우수상 : 1명 (30만원 상당) 다. 우수상 : 1명 (20만원 상당) 단, 심사결과에 따라 부분별 수상대상이 없을 경우도 있음.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2학기 집단상담 안내

고민 해결, 함께 해요!

집단상담은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 내 안의 자신을 만나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 한 친구들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만남의 장입니다.

◆ 집단 소개

집단명(리더)	참가대상	일시
참 만남 집단	내 안에 있는 나와외의 참나를 통해 자기성찰을 하고 싶은 동국인	매주 화 1~3시
해결 중심 집단	진로, 대인관계, 성격 문제 등 자 신만의 고민거리를 명료화하여 해결책을 찾고 싶은 동국인	매주 금 2~4시

◆ 리더 : 김혜경 (상담심리전문가)

◆ 기간 및 횟수

10월 7일 ~ 11월 21일까지, 매주 화·금, 각 집단별 7회씩 진행

◆ 접수 및 문의

10월 2일(목)까지 선착순 접수 (본관 2층, 구내전화 3931, 3930)

학생상담센터

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입주업체 모집공고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인터넷창업보육센터에서는 2003년도 하반기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창업 3년 이내의 사업자, 6개월이내 예비 창업자
- 접수기간 : ~ 10월 10일(금) 오후 5시까지
- 신청서류 : 입주신청서 2부 및 3.5"디스켓(입주신청서) 1부 (http://dvc.dgu.ac.kr → 입주안내 → 입주신청서 Download 또는 첨부파일)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심사발표 : 개별통보
- 입주시기 : 2003. 10월~11월
- 접수문의 : 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 ☎ 2260-3737
- 우대사항 : 법인기업 및 벤처확인기업, 병역특례기업 등 (신청가능한 보육실 : 15평, 8평, 5평 → 입주신청서 제출시 희망 보육실 기재)

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영어PASS제 토익시험 실시

영어능력 졸업요건(학칙 제54조의2)을 위한 교내 토익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03. 10. 18(토) 10:00 ~12:20
- 장소 : 동국관 L301, L401, L501
- 응시료 : 4,000원
- 접수기간 : 10. 6(월) ~ 10. 16(목)

언어연구교육원

이동병무 상담실 개설 운영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새롭게 바뀐 병역제도와 병역전반에 대하여 직접(대면)상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동국대학교에 재학중인 군미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기간 : 2003. 10. 21 ~ 22(2일간) 10시 ~ 15시까지
- ◆ 장소 : 신관도서관 입구
- ◆ 상담원 : 병무청 공보실 직원

총무처



1. 물적 환경
2. 교육과정 I
3. 교육과정 II
4. 교수임용 및 처우 I
5. 교수임용 및 처우 II
6. 간담회

이제 1천 여일 후면 건학 1백주년을 맞는다. 때문에 '동국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발전의 근본은 무엇보다 교육·연구분야일 것이다. 이에 본사는 총 6회에 걸쳐 본교의 교육·연구여건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교양과목 다양화해야

학과제 전환으로 전공기초 역할 한계 ... 인성계발·실용성 비중 늘려야

본교는 교양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난 99년 교양교육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1년 전담부서인 교양교육운영실을 신설하는 등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학부제 도입이후 전공필수과목이 없던 전공기초과목을 교양으로 대체함에 따라 전공기초학습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교양선택 제2영역부터 제4영역에 전공기초과목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다. 또한 △불교대 △이과대 △사과대 △경영대에는 대학별 지정 공통과목을 지정했으며, 특히 공과대와 정보산업대의 경우 기초과학 및 수학(BSM) 과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별 지정공통과목이 전공기초학습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전공 이외의 학생들이 수강을 많이해 강의내용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사과대 공통과목의 경우 일부학과의 전공기초과목만으로 지정돼 있어 다양한 전공의 기초소양을 쌓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과제 전환에 따른 전공기초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별 지정과목을 세분화하거나 전공필수과목을 재도입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양필수=동일과목이 여러강좌 개설됨에도 강좌별 강의내용과 평가기준이 달라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본교는 강의의 질을 균등화하고 평가방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동일과목이 여러강좌 개설됐을 경우 해당 강좌의 강사 중 전임교수 1인을 책임교수로 임명하고 회의를 통해 표준강의계획서 작성과 함께 강의내용과 교재 등을 조정하는 책임교수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내용과 상관없이 학교측에 3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했다는 근거만 제시하면 되고, 강사들의 회의도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구승희(윤리문화학) 교수는 "40개 이상 강좌가 개설된 과목의 경우 해당강사가 모두 모이기 힘들어 실질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컴퓨터활용과 실습' 등 일부 과목의 경우 강의내용이 강좌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측이 책임교수제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책임교수와의 정보교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단과대 특성과 보편성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불교대의 경우 한자 패스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정교과가 없으며, 공과대와 정산대 교양필수과목에는 '국어작문의 이론과 실제' 교과가 편성되지 않아 국어실력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강좌의 다양성 부족=본교의 경우 전공

기초교양과목은 많이 편성돼 있는 반면 인성계발과 기초소양함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순수교양과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실용교과목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는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다음해에는 제6영역에 △불교생태학 △학생회요구과목 △교전과목 등을 신설해 강좌를 다양화하고 영역의 특성화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순수교양과 실용교과목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강좌가 다양하게 개설되지 못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교과목이 개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본교는 지난 몇년간 교과목개편을 진행하지 않아, 매학기 학과에서 개설과목 요구서를 학교측에 제출하고 학생의견을 수렴해 지난 몇년간 '이미지 메이킹업과 코디네이션' 등 30여개 강좌를 신설한 한양대와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학내구성원이 교양강좌에 대해 평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교과목을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통합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문간의 연계성을 통해 개발된 통합교과목은 시대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하고 강의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된다. 때문에 이미 여러 대학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상황이며

본교 역시 다음학기에 통합교과목이 한 강좌 개설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진호(교육학) 교양교육운영실장은 "통합교과목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내용의 심층성 부족=지난해 본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사 교양강좌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교 학생들은 현 교양교육의 문제점으로 심층적 부족(50.68%)을 꼽을 만큼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심층성 부족은 시간강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본교 시간강사의 교양강의 담당현황은 약 62%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며, 교양강좌의 경우 수강인원이 과다함에 따라 강의가 토론·발표 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의식도 문제로 거론된다. 설문조사결과 학생들의 교양과목 선택기준으로 △시간표에 맞춰서(37.08%) △학점 잘 주는 교수 수업(21.64%)이 절반이상을 차지한 반면 △전공과의 연계성 △과목의 실용성 고려는 각각 19.24%와 17.43%에 불과했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사설

진정한 여론을 모아내자

구도서관 리모델링 문제에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치의 여유마저 없을 만큼 공간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현 동약의 상황으로 미뤄볼 때, 구도서관은 리모델링 이후 새 공간이 마련된다면 점에서 학내구성원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학생들이 구도서관 리모델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본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해 연일 비판과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구도서관 공간 문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터라 더욱 그러하다. 지난해 학교와 총학생회가 합의했던 구도서관 리모델링 안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쟁과 공방은 거듭돼 왔다. 당초 합의안에 없었던 불교대 이전 문제를 두고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도 그 중 하나다.

때문에 현재 구도서관 공간 문제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분열돼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데 있다. 오는 7일 열릴 비상 학생대표자회의가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는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불교대 이전안을 중심으로 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비상 학생대표자회의의 성사 여부다. 의결권을 지닌 학생대표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기 일췌했던 그동안의 선례로 볼 때, 이번에도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대표자회의는 소규모 단위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다. 좀 더 광범위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결정된 합의안은 그만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단위 학생 대표자들의 책임의식과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시간 역시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공간 문제인 만큼 학생대표자들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대표성을 띄는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진정한 대표성을 띄는 여론을 모아낼 수 있을테니 말이다.

동국만평

장미애 substory@hanmail.net



동약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을 듣는다 - ③ 각 학과 학생회장

“아주 작은 ‘소통’ 부터 시작하라”

학과학생회 강화는 '학생회운동과 학생운동은 함께 발전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내세우는 학생운동개척의 가장 기본적인 대안이다. 이에 학과학생회장들이 학과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지적하는 '동약 학생사회의 발전조건'에 대해 살펴본다.

- 편집자

“생기없는 학과학생회가 답답해 학생회장이 되기로 결심했지만,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는 않더군요.”

올해 경영대의 한 학과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 군. 학과학생회장이 된지 약 7개월이 지난 그는 학과학생회 운영이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공

짜 술자리'까지 마련하는 등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홍보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만 모이는 '반쪽 학생회'를 벗어나기는 힘들었던 것이다.

학과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학과학생회장들의 상황 또한 최 군과 비슷하다. 특히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과대, 공과대, 문과대 등에서 학과학생회 약화 현상은 두드러진다. 한 학생회장은 "전체 학과학생 중 3분의 1, 심지어 절반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회장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일반학생-학과학생회-단대학생회-총학생회'로 이어지는 의사소통체계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과학생회장들은 소

위 '학생운동'에 대한 생각은 많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학생사회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일과 밀접히 연결되어있어 의미를 지닌다.

먼저 대다수 학생회장들은 '구성원들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나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과 학생회가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을 초대해 학과생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고, 공대 학생회들이 매년 진행되는 학과전시회 준비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즉 전공영역과 같은 '소통의 토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학생회 등 상위기구가 학과학생회 운영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

다는 주장도 많다. 한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와 단대학생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과학생회와 관련없는 개별단체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며 "학과학생회에서 활용할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학과학생회장들은 소통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대의 한 학생회장은 "이제까지 진보적인, 혹은 전향적인 의견만을 '정답'처럼 여겨온 습관을 고치고, 누구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토론하고 싶어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일반 학생들이 그동안 상위 학생회에 느꼈던 괴리감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다.

"학생운동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흐름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문과대의 한 학생회장의 지적에서도 새로운 '소통방식'을 원하는 학과학생회장들의 생각이 드러난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건학100주년 동국도약기원 100만 등(燈) 달기

동국사랑, 손모아 마음모아...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한데 모아 동국의 도약을 염원하는 「건학100주년 동국도약기원 100만 등 달기」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의 헌등이 2006년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중심대학으로 웅비하는 100년 동국과 여러분의 앞날을 환하게 밝히는 지혜와 복덕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동국사랑에 한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참여안내

■ 참여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의 정성을 소중히 접수하여 헌등씩 헌등함

■ 접수기간

2003년 8월 ~ 2006년 5월 8일

■ 부동산, 주식 및 유가증권 등 수증물품도 가능

■ 무통장입금(예금주 : 동국대학교)

조흥은행 : 313-03-002943
외환은행 : 065-13-19061-0
신한은행 : 216-05-005036
국민은행 : 068-01-0373-353
제일은행 : 107-10-119210
우리은행 : 064-032276-01-004
우체국 : 012328-01-001567

■ 지로접수 : 지로번호(7606368)

■ 헌등하신 분의 명패는 본교 정각원에 보존됩니다.

■ 100만원 이상 기부하시면 동국대학교 대각전에 부처님을 봉안하여 드리며, 동국VIP카드를 발급하여 본대학교 부속 병원 어디에서든 의료비 할인혜택과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행 및 세금공제

동약로

비판을 넘어



“아니 댄 굴뚝에 연기나겠어? 잘못했으니까 비판 받는거야”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비판하는 사람들의 잘못일 수도 있어” 최근 본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란을 보면 유명빈(경영4)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현상만을 본다면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예를 들어 구중도 문제와 관련해 불교대의 이전 논의 과정을 두고 일부 주장대로 “총학생회 의의로 정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모든 사안의 해결방법은 단위 학생회와의 토론 및 총학생회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빨갱이 집단이다’ ‘이상하게 생겼다’는 등 인신공격적인 글도 많다. 이 같은 일방적인 비난은 생산적인 논의 없이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의문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시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총학생회는 이를 위해 ‘정책협 구성을 위한 공무부’이라는 다음 커뮤니티와 학생자치 사이트 ‘동국사랑’에 총학생회의 계획과 총학생회에 남기고 싶은 말 등을 설치했으며 유명빈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원하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총학생회도 이 같은 상황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2003학년도 총학생회 홈페이지도 없이 2002학년도 총학생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고 ‘대화를 위한 창구’만 마련했을 뿐 학생들을 창구로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본교 인터넷 게시판에서 총학생회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 대신 발전적인 토론이 오가기를 기대해본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당신의 세금! 체크해 보셨습니까

담배, 술 등 대중소비품목에 특소세 과다부과 소득 재분배 논리 설득력 부족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소득세를 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학생들 역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등에는 특별소비세라는 것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별소비세는 소득재분배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용하는 즉, 저소득층의 국민들까지 이용하는 대중적 품목에 과다하게 50%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담배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값을 점차적으로 인상해 2007년까지 한 갑당 5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담배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에 흡연자가 많고, 인상을 통해 흡연자를 줄이고 늘어난 세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렇

게 된다면 담배값의 80%가 세금이 된다. 우리나라의 흡연인구는 2002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1100만 여명.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3배에 달하는 가격인상의 충격은 ‘빈자’에게 더 높은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한 갑에 평균 1.47달러이나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진국들이 가입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인당 국민소득(GNI) 수준에 비해 보면 1.23달러가 적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담배값 인상에서도 흡연자가 순간 감소했을 뿐 곧 인상전과 같은 수를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실시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저소득층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세금정책은 술, 휘발유 등에도 적용돼 5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술값은 지난해 가격의 5%를 건강보험금으로 부담하러 가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중적 상품에 대한 세금 인상보다는 금융이자로 인한 소득, 부동산값 인상으로 인한 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의 징수를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정부의 세금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과 재벌, 향락업소 등이 숨긴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많음에도 이런 탈루세원을 적발해 징수하는 것에 소극적이고 담배를 비롯한 대중적 소비품목인 술, 휘발유 등의 세금을 걷는 것에만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환(경제학) 교수는 “담배, 술, 휘발유 등이 재산세나 소득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어 세금인상이 쉽고 반발도 적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담배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세금이 타당하고 바르게 매겨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횡포’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이주의 시사 키워드

‘자주국방’ 개념 정리하기

국군의 날이었던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은 ‘10년 내 자주국방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공약절에 이어 또 다시 강조했다.

‘자주국방’이란 단어를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한 ‘방위’ 개념만 존재했던 70년대 초, 박 대통령이 대미관계까지 포함한 국방체제의 자주성을 뜻하는 개념으로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자신의 독재정권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였다. ‘우리로 강대국이 돼 보자’는 식의 민족주의 정서에 기댄 개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주국방을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자칫하면 동북아시아 군

비경쟁을 정당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개념을 정확히 정립해 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대에서 국방은 ‘방위’에 가깝다. 영토 확장·정복이 아닌 평화를 위한 준비축소를 지향하면서, ‘스스로 자기자신을 보호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때문에 현재 쓰이고 있는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는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자력국방’과 일맥상통하고, 이는 곧 ‘자력방위’를 뜻하는 셈이다.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도 북한과 동북아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는 균형감각, 주한미군에 대한 관점도 그러한 균형감각 속에서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여성축제 참가자가 말하는

‘여성문제! 이것이 가장 급하다’

‘새로운 여성의 하늘을 열자’

지난 3일 개천절을 맞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새하늘 새땅을 여는 대한민국여성축제’가 열렸다. 한국여성단체 연합, 21세기 여성포럼 등 각종 여성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과 ‘평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모자, 놀자, 바꾸자’를 슬로건으로 내걸어 여성현장선언, 살풀이 춤, 축하공연 등 쉽고 재미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됐다. 이날 시청 광장에는 주최측에서 기획한 대로 분홍색 옷을 입고, 고무장갑을 낀 여성들로 활기를 띠었다. 현장에서 만난 4명의 여성의 얘기를 들어본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박명희 씨

시청광장의 한쪽에 마련된 알뜰 시장에서 도서를 판매하고 있던 박명희 씨(20).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행사에 참가하게 된 그는 여성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 아침 일찍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가면 첫 손님부터 여자면 재수가 없다면서 소금을 뿌려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시도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구요. 남녀평등을 외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는 머리에 비녀를 꽂은 채 생활 한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갑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생활 한복을 벗어 던지면서, 순종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탈피한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자 환호하기도 했다.

“호주제 폐지에 관한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이상애 씨

이날 행사장 한켠에서 ‘여성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한 신문’에 관한 스티커 투표를 실시하고 있던 이상애 씨(30). 참된 언론을 위한 모임을 통해 이번 행사에 참가한 그는 호주제 폐지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 질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1인 1호주제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이날 호주제와 관련해 호주제폐지 ‘양성평등 1분 발언,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별 성향 조사 결과 발표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여성의 사회생활 위해 육아휴직제가 꼭 필요해요”



김주숙 씨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인 행사 현장에서 김주숙 씨(60)는 몇 안되는 60대 중의 한명이다. 그는 평소에도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호주제 폐지 말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성문제들은 많이 있어요. 특히 육아휴직제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여성의 노동력을 집안에서 썩히게 해서 안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후 1년미만 영아를 키우는 근로자가 가장 1년간 휴직할 수 있는육아휴직제의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녀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하는 그의 모습에서 직장여성들의 현주소를 찾을 수 있었다.

“남녀평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한미선 양

이날 행사에는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었는데, ‘어깨동무 신나는 집’에서 온 한미선 양(10)은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여자가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죠.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앞으로 남녀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거예요”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이라크 전투병 파병 저지를 위한 전대기면 공동광고

파병... 하시겠습니까?

얼마전 실시한 전국 대학생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분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동조하고 싶지 않아서’가 67.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 놀음에 진짜로 ‘한 뿔’ 하시겠습니까?

파병·전쟁반대, 이제 전 세계인의 바람입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학술기고 - 탈근대의 노마들로지

이분법적 국가철학에서 노마드적 사유와 실천으로



'노마들로지'라는 지적 체계는 서구적 근대의 국가와 대학에 의해 부활한 플라톤주의의 '국가철학'의 지적 체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질 들뢰즈(Gilles Deleuze)가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와 함께 창안한 지식을 지칭하는 용어다.

서구적 근대의 국가철학이 오늘날의 지적 계보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찾고 있는 것과는 달리 들뢰즈는 노마들로지의 지적 계보를 스토아학파의 사유체계에서 찾는다. 서구의 세계에서 스토아학파의 사유체계는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하여 스피노자, 흄, 니체, 그리고 베르그송에 의하여 계승되었지만, 이들은 근대의 주류 철학자들인 데카르트, 칸트, 헤겔, 그리고 하이데거에 의하여 비주류 철학자들로 매도된 것이 근대적인 핵심사상이다.

플라톤의 국가철학은 이데아와 현실의 이분법을 주인과 노예, 신과 인간, 정신과 몸, 선함과 경험, 주제와 객체, 국가와 국민, 아버지와 아들,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으로 끊임 없이 부활시킨다. 따라서 플라톤의 국가철학이 지배하는 서구적 근대는 서구, 백인, 남성 중심주의의 파시즘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의 근원은 인간을 국가인으로 규정하고, 인간 개개인을 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플라톤의 국가철학이다.

근대의 주류 철학자들은 달리 들뢰즈는 인간을 노마드(유목민, 혹은 방랑자)로 규정한다. 가족, 사회, 국가와 같은 공동체는 노마드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일시적인 유목적 고원, 즉 삶의 문화를 공유하는 무리일 뿐이다.

이러한 노마드의 무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무리가 국가철학적인 서열체계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남녀노소를 막론한 친구들과 연인들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단지 인간에게 머물러 있지 않다. 노마드적 삶은 동물이나 식물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와 같은 집합체, 그리고 진리와 정의, 사랑과 믿음과 같은 추상명사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사회체와 추상명사(기계)의 이동과 탈주를 가로막는 것은 그러한 것들의 생명성을 갉아먹는 영토들이다. 물고기가 이동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뱀과 동물들이 이동하는 루트에 만들어진 멧은 물고기와 동물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죽이기 위한 영토화의 작업들이다. 물고기와 동물들은 거대한 뱀을 넘거나 멧을 피하기 위하여 온갖 위험을 무릅쓰거나 심지어 죽음으로 항거한다. 이러한 항거를 들뢰즈는 '탈영토화'라고 부른다.

탈영토화를 통한 재영토화의 과정, 즉 이동과 탈주가 없는 물고기와 동물들의 삶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동물의 삶을 갉아먹거나 죽이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이동과 탈주를 가로막는 울타리와 멧은 인간의 삶을 갉아먹거나 죽이는 것이다. 국가철학에 의해 만들어진 이러한 울타리와 멧의 영토들을 들뢰즈는 국가주의

와 가족주의, 그리고 인간 중심의 상식으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들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인간의 이동과 탈주가 가로막히기 시작한 것은 인간들 사이에 지배자가 존재하면서 피지배자들에게 정착을 강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배자(주인)와 피지배자(노예)의 이분법은 국가철학의 가장 오래된 형식이고, 그러한 형식은 역사적으로 지배자의 위치에 신, 국가, 그리고 아버지, 남자, 인간이라는 이름을 대치하면서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설득을 통하여 노마드적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동과 탈주를 가로막는다.

지배자의 폭력은 눈에 보인다. 그러나 지배자의 설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의 설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사유하고, 그리고 스스로 사유한 지식을 실천해야만 한다. 우리는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사유한 지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존재와 삶이 노마드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인의 사유와 지식도 또한 노마드적이야만 한다.

따라서 들뢰즈는 노마드적인 삶과 사유의 형식으로 구성된 지식을 '노마들로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노마드적인 삶의 기준과 가치에서 벗어나 지배자의 폭력과 설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지배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유의 형식과 지식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유의 형식을 국가철학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인간의 무리 속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존재하는 한 노마들로지의 지식인과 국가철학의 지식인은 뒤섞여 있다. 이러한 지식인들 속에서 노마드적인 지식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론과 실천, 그리고 끊임없이

이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도사리고 있는 현실적 삶과 지식체계에 대한 저항, 혹은 그러한 삶과 지식체계에 대한 노마드적 분석의 이론과 실천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노마들로지의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플라톤주의와 동양의 유교철학이 지니고 있는 근대적 친화성은 돌이 모두 가족주의에 근거한 동양과 서양의 국가철학이라는 점일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들뢰즈가 이야기하는 노마들로지의 지식인을 노자와 장자, 원효, 그리고 서구적 근대와 다른 동아시아의 새로운 근대를 구성하고자 했던 중국의 루쉰과 일본의 나쓰메 소세키, 그리고 우리의 만해 한용운의 삶과 지식체계에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지식체가 서구적 근대의 주변부로 밀려난 스피노자, 흄, 니체, 그리고 베르그송이나 들뢰즈와 유사한 이유는 들뢰즈가 스토아학파로 거슬러 올라가 새롭게 구성된 노마들로지의 지식체계가 동양의 도가철학이나 불교의 유식학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들뢰즈의 지적인 작업처럼 새로운 노마들로지의 관점에서 노자와 장자, 원효, 루쉰, 그리고 나쓰메 소세키와 만해 한용운의 삶과 지적 체계를 새롭게 총괄하는 지적인 작업은 서구, 백인, 남성 중심주의의 근대에서 벗어나 서구와 비서구, 인간과 비인간, 남성과 여성의 오래된 이분법을 폐기처분하고 친구들과 연인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탈근대의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이미 탈식민주의, 생태주의, 그리고 페미니즘의 지식과 실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시기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노마드적인 지식의 사회적·정치적 이론과 실천, 지배와 피지배 구조의 현실적 삶과 지식체계에 대한 저항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곧 노마들로지의 지식인



민주법학회 가상토론회

이주노동자 권리도 보장해야

지난 7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주어졌다. 하지만 이 제도는 체류기간 4년 이하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4년 이상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본교 민주법학회(회장=정무건·법2)가 '외국인력 도입제도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 특히 상황극 형식으로 진행된 '가상' 토론회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토론자들은 크게 △현재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옹호하는 입장 △기준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해 지속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 △새로운 방법인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

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열띤 논쟁을 벌였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정주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세 축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뤄졌다.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하지는 않겠다는 박성주(법1)군은 "이주 노동자의 정주화에 따라 사회 국민층이 형성되고, 국가의 사회 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주현(법1)군은 "그러한 문제는 노동허가제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절대체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노동허가제 즉 입장인 권운영(법1) 양은 "선진국일수록 3D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주화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며 "인권을 빼앗는 산업연수제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고용허가제보다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산업기술 연수제의 문제점 △이주 노동자의 지위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른 한국 노동자의 실업률 증가 문제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노동자 나담(평등노동이주지부) 씨가 참석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로 인해 긴장 속에 사달리고 있다"며 "노동허가제를 보장해 우리에게도 사람답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설윤진 기자 dsws@dgu.edu

사법학회 제15회 심포지엄
양성평등 실현방안은 1인 1적제

지난 5월 호주제도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 달아올랐다. 게다가 지난달 4일에는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 입법을 예고해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교 사법학회(회장=박문수·법2)가 이러한 호주제의 문제를 내용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4일 '호주제도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5회 학술심포지엄이 바로 그것. 호주제도 폐지 시 도입 가능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모색해 보는 데 연구와 목적을 둔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의 호적제도의 연혁과 현행법상 호적제도의 특징 △외국의 신분등록제도 △호주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현행 호적제도의 문제점 △기분가족별 편제방안과 호적·주민등록의 일원적 방안 그리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1인 1적제)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현행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명복(법2)군은 "전통적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부계혈통 중심인 현 가족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녀의 부가(父家)입적과 처의 부가(婦家)입적 우선 원칙은 여성의 종속된 지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호주제의 대안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살펴본 배재성(법3)군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이 대표이자 등록부의 중심이 되는 1인 1적제"라고 정리하며, "1인 1적제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에서 제기되는 기존 선정의 문제도 생기기 않을뿐더러, 본적제도도 필요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가 변화하고, 구성원들의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의 변화 역시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법이나 제도는 사회구성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일 뿐 사람들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역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사상가 이야기

정용길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회주의와 체제전환에 대해 연구한 정치학자

클라우스 폰 바이메
(Klaus von Beyme · 1934~)

1934년 독일에서 태어난 클라우스 폰 바이메(Klaus von Beyme · 1934~)는 하이델베르크, 뮌헨, 파리 그리고 모스크바 대학을 거치며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을 전공한 학자다. 역사 깊은 독일의 튀빙겐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객원교수를 지냈을 뿐 아니라 서독 정치학회 회장 그리고 세계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참으로 많은 책을 출판했는데, 그 중 동유럽 사태 후 94년에 펴낸 'Systemwechsel in Osteuropa'가 '탈사회주의와 체제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번역 출판돼 있다. 폰 바이메가 관심있게 연구한 분야의 한 축은 '독일정치론' '20세기 정치이론' 등의 저서들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의회제도와 정당, 선거, 이익단체 등이다. 또 다른 한 축은 '사회주의나 복지국가' '소련에서의 개혁정치와 사회변동' 등의 저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주의와 체제전환에 관한 것이다. 이 중 '동유럽의 체제전환'의 내용만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이 책에서 급세기 유럽의 민주화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 민주화의 물결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입헌군주제로부터 공화국으로의 전환이고,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시스트 세력의 패배로 민주주의의 재도입이 가능한 시기였으며, 세 번째는 70년대로 정쟁이나 대외적 사건과 무관하게 질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체제로 변화되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1989년 동유럽혁명 이후 소련이라는

블록 중심세력이 몰락함으로써 비롯됐다고 보았다. 그런데 20세기에 있었던 네 차례의 민주화 과정 가운데 어떤 경우도 1989년의 사태만큼 체제물락과 체제구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나타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1989년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교체의 상황을 겪게 된 이유는 억압적 정치체제, 비효율적 경제체제, 다민족체제에서 파생된 인종갈등 그리고 소련의 몰락 내 헤게모니에서 야기된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폰 바이메는 사회주의와 소련 및 동유럽 연구에서의 주된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사회과학의 예측가능성 부족이 그것이다. "자연과학자는 며칠 후의 일기예보는 종종 정확하게 맞는다. 그러나 다음해의 여름날씨는 그들의 예보에서 제외된다. 합리적인 자연과학자들에게조차도 부가하지 않는 미래의 과제, 이를 테면 사회주의의 미래나 전망 같은 문제를 어떻게 정확도가 훨씬 떨어지는 사회과학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독일 정치학자, 독일정치론, 20세기 정치이론, 탈사회주의와 체제전환 등 저술.



학술단신

한국 철학자 대회

20여 개의 국내 철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철학자 대회가 오는 10일부터 3일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다. '탈민족주의 시대의 민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내 6백여 명의 철학자가 참석해 △세계화 시대에 맞는 민족개념 △현대에서의 민족의 의미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민족개념 △민족의 정체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족담론의 현대사적 의미=차인석(서울대 철학) △자유민주주의와 민족담론=남경희(이화여대 철학)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아주대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아주대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다산관에서 '한국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1세기의 한국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을 초청 해외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과 풍토 등을 듣고 국내외의 연구동향과 비교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장광권(중국 낙양외대) △21세기 한국 문화 강의 및 연구전망=테레사 현(캐나다 요크대) △21세기 한국 사학의 방향 모색=박노자(오슬대) △동양의 고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박성배(뉴욕주립대) 등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립국어연구원 학술대회

국립국어연구원(원장=남기심)은 오늘(6일) 세종문화 회관에서 '국어 순화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정복 대우대 교수와 서지문 고려대 교수 등 4명의 발제자가 △국어 순화의 필요성 △순화 용어의 선정 기준 △방상언어의 순화 문제 △남북한 언어의 순화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우리말의 현실을 돌아보고 순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교수동정

△순성(법학)=지난 9월 30일 한·중 법학회 회장으로서 선출. △이상현(경찰행정학)=제8회 한국 시민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지도자 공로대상 수상. 2002년 월드컵 세계평화운동본부 명예총재 추대. △황태현(정치외교학)=지난 9월 30일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소장에 임명. △김익기(사회학)=북경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의 하기 논문 발표 위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방문. △박인국(생물학)=제19차 국제 생화학 및 분자 생물학회 참석 및 연구결과 발표 위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방문. △박정국(생명화학공학)=한·중 지역생물과학 심포지엄 위해 오늘(6일)부터 7일까지 중국 방문.

달라지고 있는 캠퍼스 연애풀속

‘대학생들은 이성교재를 가볍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흔히 요즘 젊은이들의 ‘연애’를 ‘인스턴트식 사랑’이라 말한다. ‘짧은 연인’들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교 학생들의 ‘연애 풍속도’와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연애경험도

본사가 본교 학생의 약 2%에 해당하는 302명의 학생(남학생 164명, 여학생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남학생의 67.00%와 여학생의 80.43%가 연애를 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애를 시작한

게 되는 주 경로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40.90%와 여학생의 58.55%가 ‘과 동기 혹은 학교 선·후배와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해 본교 학생들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C.C(Campus Couple)를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의 어떤 면에 호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남·여 응답자의 53.63%·66.66%가 ‘성격’이라고 답했으며, 헤어지는 이유 역시 ‘성격차이’가 남·여, 58.18%·57.6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동국인들이 이성 관계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격’으로 밝혀졌다.

한편, 남학생의 63.62%와 여학생의 68.46%가 ‘최단 기간 두 달 이하로 사귀어 봤다’고 응답해 본교 학생들 역시 ‘인스턴트식 사랑’이라는 말을 면하기 어려운 듯하다.

하지만 본교 학생들은 이해 대해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여 전체 응답자의 55.48%·50.72%가 ‘이해한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인스턴트 사랑’이 이뤄지는 까닭에 대해 남·여 모두 ‘쉽게 좋아하고 쉽게 싫증 내기 때문에’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으며 연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유로 제시했다.

연애기간 중 스킨십

‘연애기간 중 스킨십이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본교 여학생들은 ‘키스까지’를 1위로 꼽았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섹스까지’가 응답자 중 65.24%를 차지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성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애를 경험해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신이 연애시 경험해 본 스킨십 정도에 남·여 학생 모두 키스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남학생의 경우 섹스(27.27%), 여학생의 경우 팔짱끼는 것(18.91%)으로 조사됐다.

한편, 혼전 성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위의 연애기간 중 가능한 스킨십에 대한 설문조사와 다소 모순적으로 나타났다. 남·여학생 모두 78.65%와 71.01%로 ‘혼전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혼전 성관계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혼전 순결이 결혼할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남·여 각각 57.14%와 8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혼전순결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20.00%로 2위를 차지해

본교 여학생들의 상당 부분이 혼전순결에 대해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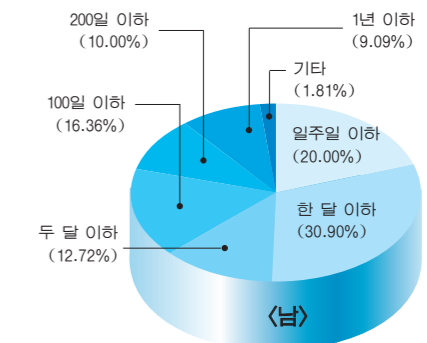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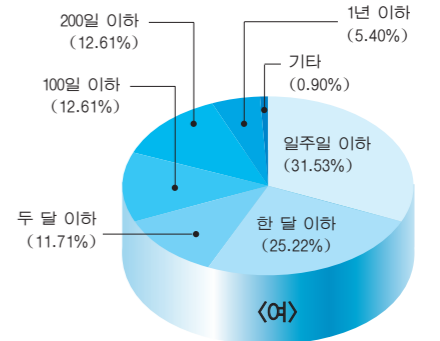
혼전동거

‘혼전동거는 절대 안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남·여 전체 응답자의 6.09%·14.00%에 불과해 본교의 학생들은 혼전 동거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혼전동거가 가능한 전제로 남성의 경우 ‘사랑하는 사이라면 할 수 있다(42.07%)’를 1위로, 여성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할 수 있다(39.00%)’를 1위로 꼽아 혼전동거에 대한 남·여학생의 인식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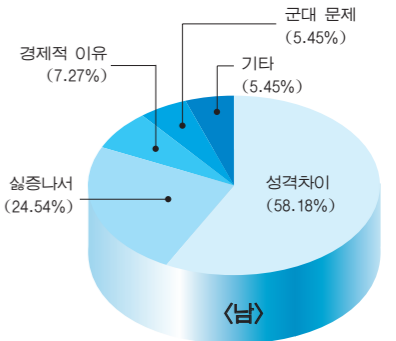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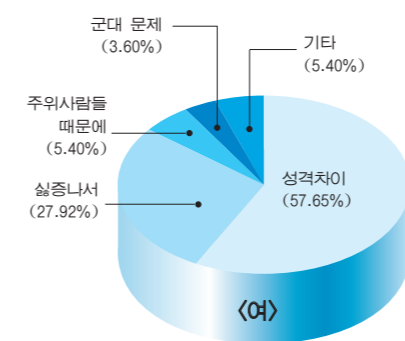
또한 혼전동거에 반대하는 학생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헤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와 ‘책임지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김진성 기자
yearm@dongguk.edu

● 최단기간 사귀어 볼 수는 몇 일입니까?



● 헤어지는 이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솔직 · 담백 연애성공담

용기로 얻은 ‘나만의 천사’



저는 올해 3월에 복학한 공대 복돌이입니다. 복학한 후 어느 날, 학사회실에 앉아있던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뺨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학입조차 포기할 것 같아서였죠.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잊혀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각이 날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나

중에 무척이나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결심을 하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제 친구와 친해서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었죠.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마침내 주위에서 우리를 연인관계라 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오빠, 우리 그냥 편한 선후배로 지냈으면 좋겠어요’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고, 끊었던 답배를 연이어 3대나 피웠습니다. 그 후, 그녀가 제게 인사할 때마다 감정을 숨긴 채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곤 했습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던 제 모습을 숨긴 채 말입니다.

5월 14일 로즈데이날, 저는 문득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 장미 백송이와 카드를 주문해 그녀와 제가 함께 듣는 수업의 강의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 교수님이 수업 중 갑자기 나가시더니 1m 정도 되는 크기의 빨간 꽃상자를 들고들어오시면서 그 애의 이름을 호명하셨습니다. ‘장미꽃 100송이 배달왔네요’라는 교수님의 한마디에 그 자리에

서 수업을 받는 50여명의 학생들은 일제히 감탄사를 내 보이며 부러운 마음에 수근수근 거렸고, 교수님 역시 “학교 교직원활동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면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그 애 또한 얼굴이 새빨개지며 좋아하는 모습이 역력했구요.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린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열흘 뒤, 그녀의 동아리가 학교 근처 카페에서 일일차집을 했습니다. 그녀, 제 친구와 함께 마지막 공연을 보던 중,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공과 김영주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갑작스런 상황에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저는 담담하게 무대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공연 보러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잠시 활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여기 있는데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라며 5분여간 말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전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받아줄 수 있으면 여기서 나와서 이 꽃다발을 받아줘”라고 말했고, 우뢰와 같은 함성 속에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무대로 나와 제 꽃다발을 받아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를 꼭 껴안아 주었죠.

옛말에 용기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저는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 날 이후 지금까지 저희는 연애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 캠퍼스 커플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영주 (정신대 컴공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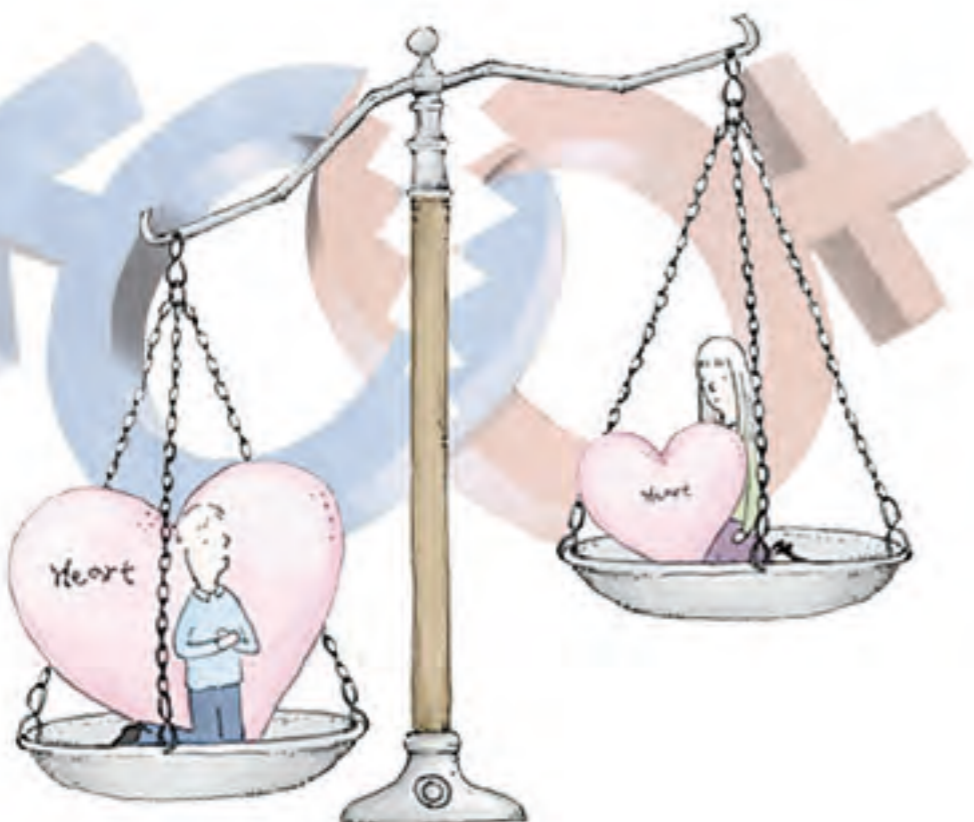
동국인이 제안하는

권태기 극복법!

- △삼시동만 만나지 않는다. 그리워서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 △다른 때보다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한다. 권태기때는 작은 오해도 헤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무엇이든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 △초심으로 돌아가자. 연애초기 때 갔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 본다.
- △세상에 남자(여자)는 애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상대방만을 생각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자기 개발에 주력한다.
- △무박 2일로 놀러간다. 은밀한 여행, 갔다오면 확 풀린다.
- △특별하지 않은 날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다.
-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해 상대에게 충격을 준다.
- △새로운 데이트 방법을 구상해 본다.
- △스기다리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이다.
- △새로운 일을 만들어 있고 지낸다.

기획광고

내겐 너무 가벼운 당신?



연애 풍속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가볍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 하지만 그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일 조금은 신중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본교 커플 1일 데이트

학부 동기에서 연인으로 ... 친한 친구같은 '닭살 커플'



공휴일을 맞아 많은 인파들로 붐빈 지난 3일 남산. 본교 백승현·이소호(불교대1) 커플이 본교 정문을 출발해 케이블카를 타러 가고 있었다. "소호하고 같이 있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즐거워요"라는 백 군. 그의 말처럼 산을 오르는 그들의 표정은 마냥 즐거워 보인다. 학부 동기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연애를 시작한지 75일 된 이들 커플은 보통 동갑내기 C.C들의 특징인 친한 친구와 같은 모습이다.

남산에서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학내 전경을 보고있다

처음 타 보는데 너무 기대돼요." 이 양은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듯 한 모습이다. 산 높은 곳에 보이는 서울타워 전망대까지 외출에 매달린 채 3분간 운행하는 남산 케이블카는 지난 62년 운영을 시작해 40여년의 역사를 지녔다. 외출에 매달린 채 운행하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아슬아슬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이동수단보다도 안전하다고 한다. 미끄러지듯 출발한 케이블카의 창

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지자 이 양은 "이런 기분이구나. 오늘 날씨가 좋아서 엄청 멀리까지 보인다"며 창 밖을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다.

케이블카로의 짧은 등반을 마친 이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봉수대. 봉수대는 조선시대 통신수단으로 이용된 시설로 불과 연기를 통해 외침 등을 알리는 데 쓰였다고 한다. 백 군과 이 양은 "수업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 신기하다"며 내부와 외부를 이곳저곳 자세히 살펴보았다.

학교에서부터 쉬지 않고 2시간 가량 움직인 이들도 지쳤는지 팔각정이 보이자 그 곳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들의 티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타워가 움직이는 것 같아"라며 머리 위의 타워를 바라보며 이 양이 말하자 "바보야,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잖아"라며 백 군이 핀잔을 준 것.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던 둘의 사랑싸움은 대부분의 커플이 그러하듯 역시 여자인 이 양의 승리로 끝났다.

이어서 이들은 서울타워로 향했다. 서울타워에는 '지구촌민속박물관' '입체영상관' '전망대' 등의 많은 시설이 있는데 이들은 오늘 전망대를 구경하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을 하던 이들이 본교가 보일 것이라고 본교를 찾기 시작했다. 잠시 후 "와, 저것은 명진관이고 저것은 도서관이네." 서울타워에서 학교가 보인다는 것에 신기해하는 이들의 손가락 끝에는 본교의 전경이 있었다.

명동에서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있다

는 명동. 명동에 도착한 이들은 음식점부터 찾았다. 서울타워에서 "수제비가 먹고 싶어"라고 말한 이 양의 말을 기억하고 있던 백 군은 수제비가 있는 음식점으로 들어갔고, 낚지볶음과 수제비를 시킨 이들은 서로 먹여주며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졌다. "어! 나 저 옷 마음에 들어." 명동거리를 구경하던 백 군의 말에 들은 옷 집에 들어가서 여러 옷을 구경했다. "이 옷 입으면 너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한참 동안이나 구경을 했지만 예상외로 이들의 손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충동구매는 좋지 않아요"라며 남자친구의 충동구매를 막았다는 것에 뿌듯해 하는 이 양의 말을 끝으로 이 날의 데이트는 끝이 났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백승현·이소호 커플. 이들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갈 거 기대해 본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시간에 따른 커플의 행동 변화

by songdin



그와 그녀의 숨겨진 연애심리

여...논리 · 소유적 사랑, 남...유희 · 낭만적 사랑

'내 애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연애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의도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당황한다. 남녀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향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실제로 연애를 경험해 본 사람은 남녀가 사뭇 다른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에 임상심리전문가 서울대 김중술(의학) 교수를 만나 남녀가 연애시 어떤 심리적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들어 보았다.

she is ... 연애 관계 그 자체를 중시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한다. 이는 여성이 무엇보다 이성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 여성의 이러한 심리는 동성에게도 마찬가지다. 여성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동등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와 분위기를 중요시한다는 것이 어쩌면 여성을 '감성적이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낭만적이다'와 착각한 것. 대부분의 여성이 연애에 있어 철저히 이성적이다.

때문에 사람을 끌내자고 먼저 제안하는 것은 대부분 여성이고, 특유의 논리

적 사고방식에 따라 한 사람이 끝났다는 사실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생활을 재조직해 나간다고. 여성은 논리적 사랑·소유적 사랑·친구와 같은 사랑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he is ... 관계보다는 '야심(ambition)'을 중시한다. 이는 여성의 추구경향인 친밀감보다는 명예욕·성욕 등의 욕구만을 앞세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이러한 경향은 남성이 동성과 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도 드러난다. 대체로 남성은 동성을 그의 출세나 야망의 정도를 통해 평가하고, 여성은 자신의 욕망 중심적 사고로 판단한다.

자신의 야망·욕구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은 남성을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감성적'이라는 분석. 사랑이 끝났을 때 고통을 더 많이 받는 쪽은 남성이며, 그로 인해 자살할 확률도 여성보다 세배나 높다. 지난 사랑에 대해 체념하지 못하고 그 실패를 두고두고 되새기며, 실패의 원인과 자신의 잘못 등을 분석해 보는 것이 대다수 남성의 경향이라고. 남성의 대다수가 유희적 사랑·낭만적 사랑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민>

mh705@dongguk.edu

소나기

신당 창당, 그리고 4당 체제 정치계의 향방은?



△여·야의 개념이 흔들리다. △정치인들의 속은 항상 모르겠다. 그런데 노무현의 속은 더 모르겠다. △경쟁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란... △난장판이네 정말. △취직 때문에 정신 없는데 신당은 또 뭐냐. △신당에 대통령 합류! 새로운 여당으로 부각. △최세 대통령이군. △더러운 이합집산이 시작되었군. 내 밥그릇은? △잘못된 일이다. 전라도 파는 물에 기름과 같다. △한나라당, 영월하라! △조만간 또 쇼 하겠지. △한나라당 날치기 법안 통과이후 신당의 한방려쉬 △노무현♡김금실. 그들의 사랑 영월하라. △뭘 있겠소. 판나라당이나 로또타진거지. △여기저기서 자살이다 카드벌죄다 경기는 좋지않고. 그런데 자기들은 정치싸움이나 하고있으니. △한나라당 정말 싫어. 한나라당 없어지고 보수세력 타파한 개혁정당! △민주노동당이 곧 뜬다. 4당체제가 아닌 5당체제. △민주당의 총리책임제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세력이 줄어들 것이다. △정치인들이 신념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좋겠다. △통합신당이라는 이름에 맞게 행동해주세요. 또 뒤통수 때리지 말구요. △어떻게 돌아가는 관공인지 관심없다. △당리당략에 맞춰서 움직이는 정치인들. 물러나라!! △어른이 따르지 않는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아직까지 정치인들을 믿는 바보도 있나. △제대로 좀 해라. 내가 해도 그것보다는 낫겠다. △모두 다 싫다. 기성정치인들이여! 이 땅을 떠나라~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 당을 만들테니 모두 나를 따르라~ △노무현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데, 무슨 속셈인지...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보통 학문에서 한글을 사용한다고 하면 학문적 개념들에 관해 우리말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나의 전공인 철학에서도 '우리말로 철학하기'를 자기 삶에서 꼭 이룩할 일로 삼고, 그 난해한 철학 개념들을 모두 순수한 한글 용어로 바꾸는 데 온 힘을 쏟는 분들이 적지 않게 생겼다. 특히 한국 현대사에서 서양 철학을 수용할 때 그 논문과 저서들을 일본어와 중국어 번역어로 받아들이려 했던 초기 상황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서양 철학 번역어를 우리말로 다시 세기는 일은 일본 제국주의와 유물중심주의라는 이중의 정신적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화의 어려움

그러나 대부분 한자에서 차용한 용어들을 단숨에 한글 용어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이 글을 쓰면서도 나는 '철학'이라는 내 전공 표기를 '학(哲) 배움(學)'으로 바꿀 수 없는 여전히 식민주의적 잔재 안에서 눈치를 살피는 내 자신의 딱한 처지에 자기 연민(아이쿠! 또 한자어)을 느낀다. 아주 중요한 철학 개념인 '이해(理解)라는 말



논단

홍윤기 철학과 교수

개념 살리는 '한글화'로

도 그렇다. 그것은 한 사람이 가진 어떤 관념이나 그가 사용한 언어 안에 담긴 뜻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넘겨지거나(기를 쓰고 '전달되거 나'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는 나의 분투에 박수 를!) 새겨지는('파악되는') 과정이나 상태에(또 기어코 한자어말!) 쓰이는 용어인데, 이것을 한글로 바꾸기란 현재로서는 아주 어렵다. 거의 편집증적으로 한글을 개발해온 북한학계에서도 이해라는 말은 남한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한자어인 료해(了解)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이다.

학문에서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이 개념들을 단지 한글 명사들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개념들이 담고 있는 여러 뜻들을 잃지 않고 한글에 넘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라는 개념에는 일상적으로 새겨지는 뜻밖고도 역사적으로 쌓인 학문적 문제 의식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글로 바꿀 경우 그런 중요한 측면들이 흘러 빠질 위험성이 여전히 많다. 따라서 학문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문제는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더 풍부하게 많은 뜻을 체험할 수 있는 생각의

들과 사례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일과 바로 이 어진다. 이런 견지에서 한글 사용은 단지 한글 용어뿐 만 아니라 한글로 표현해야 그 뜻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도록 한글식 문법과 글쓰기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노력 쪽으로 그 범위를 넓혀 생각할 문제이다. 즉 한글로 사용할 때 그 뜻이 정확하게 새겨지는 경우가 한두 가지 아니다. 해결 철학을 공부할 때 내가 겪은 일은 이런 노력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글식 글쓰기'가 더욱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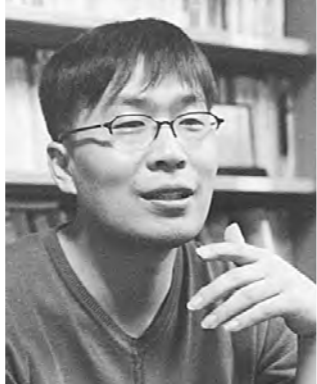
해결 철학에서 '절대자'라는 말은 진짜 절대 이해해야 할 말인데, 이 한자 용어 자체는 마치 인격적 신을 가리키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 말에 해당하는 das Absolute 라는 독일어는 이와 전혀 판판으로 '절대적인 그 무엇'을 뜻한다. 그것은 한 문제의 해결에 요구되는 여러 조건들이 일단 완벽하게 충족되어 그 수준에서는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당연히 이 말은 '절대적인 것'으로 옮겨야 더 정확하게. 결국 어떤 언어의 사용은 그 언어와 관련된 여러 생각들을 충분히 새길 때 책임 있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길

박진호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문화재 디지털 복원 전문가

"디지털로 '바미안 석불'도 되살렸죠"



지금은 2003년이지만 지난 8월 약 100여년 전의 청계천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 실제로는 복원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영상으로나마 복원한 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본교의 박진호(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군. 박 군이 되살려낸 것은 그 뿐만이 아니다. 노아의 방주, 미르사의 금당벽화, 황룡사 9층 목탑 등이 그의 손을 거쳐 재탄생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복원하는 '디지털 복원'을 10여년 동안 해 온 박 군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제1호 디지털 복원 전문가이다. 박 군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복원에 뛰어들게 된 것은 2000경주문화엑스포에서 신라의 서라벌을 가상현실로 영상 복원하면서 부터다. 그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기술과 신라의 장대함에 감탄했을 때 느낀 자부심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재 복원 전문가로서 '깨우'는 일을 깨달았던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업이라 힘들지만 의미있는 일이라 즐거워요." 그는 자신의 일에 문화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즉 문화재를 재탄생시켜 과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본교 대학원에서 불교 미술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것도 이러한 자긍심 때문 이다. 그는 디지털 복원을 위해서라면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 지난해 복원된 '바미안 석불'은 그가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조사해 완성한 것이다. 그는 5세기 당시의 바미안 석불을 모형으로 제작해 아프리카 문화부에 제공, 바미안 석불 재건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앞으로 복원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죠. 북한의 문화재 중 복원하고 싶은 것은 1천개도 넘는걸요"라고 말하는 박 군. 그의 모습에서 남다른 욕심과 문화재에 대한 유별난 애정이 돋보인다. "한국 디지털 복원 연구소'를 만들어 문화재 복원만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공간을 갖고 싶다는 꿈을 가진 박 군. 과거의 문화재를 살림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사 뿐 아니라 세계 문화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날을 기대해 본다. 설윤진 기자 dbswls@dongguk.edu

독자서평 - 언제나 소박하게(존레인)

진정 소박한 삶은 풍요로운 것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렇다면 과연 돈으로 행복까지 살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돈으로 결코 행복까지 살 수는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그 이유로 소위 성공했고 잘나간다고 하는 많은 이들보다 오히려 제3세계 국가로 불리는 곳의 소박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더 풍요롭고 충만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든다. 이처럼 이 책은 적게 가져도 오히려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해준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뜻하고 있는 내용을 말이다. 적게 가진다는 것은 삶을 소박하게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 곳곳에는 왜 소박하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소박하게 살 수 있는지, 소박하게 살면 어떤 유익함이 따르는지 등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박한 삶이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는 물론 나아가 지구 환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풍부한 자료 분석과 경험적 증언, 그리고 풍서고금의 경우들을 인용해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의 핵심은 소박한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소박한 삶'에 관한 교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소박한 삶'이란 가난함, 궁핍함, 게으름, 인색함 혹은 자기부정의 삶을 살거나 문명과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소박한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저자는 진정한 소박한 삶이란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더 풍요롭게 사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소박한 삶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단과 실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손에 익지 않아 때론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박한 삶이 지나는 놀라운 행복의 마력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번거로운 감수할만하지 않을까. 자신의 생활패턴이 변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그 변화는 행복한 삶을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강건욱(불교대 인철2)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폭넓은 기사시도 긍정적 사회 과학분야 편중 아쉬워

동대신문은 동대에 대한 포괄적인 기사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지난호 동대신문은 폭넓은 시야를 갖고 동대내의 다양한 문제거리들을 다루려고 시도한 흔적이 보인다. 우선, 1면에서는 교내의 중요한 사안들을 기사화하고 있다. 발전기금모금 전개운동, 박관호교수 5억기부, 교육·연구환경 개선필요성, '동국비전21'의 현실화방안 모색, 총장·학생회 간담회, 수해피해학생 접수연장 등에 대한 기사가 그것이다. 그리고 2면의 영어패스제 인식부족, 3면의 '동국발전은 교육의 질향상부터'라는 대주제 하의 첫 번째 주제인 '물적 환경' 문제, 실습·기자재비, 도서관인비 및 낙후한 도서관서버 등에 관한 기사는 현재 우리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들 중의 몇 가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리고 7면의 '지금쯤 통화중? 지금은 촬영중!'은 일부 카메라폰 광고가 '몰카'를 조장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고, 그리고 8면에서는 예술영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시각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맞춤법의 오류·1면의·대신 물음표, 7면의 ('시행될 지')('시행될지'가 맞음)나 8면의 '바깥던'('바깥던'이 맞음)의 오타 - 는 기자들의 부주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과학에 관한 기사가 필요이상으로 많다고 본다. 최인숙(철학과 교수)



동악광장

축하합니다

△현식!생일 축하한다 -ks △박정현! 너 너무 멋있어~웃산거 축하해.. -mz △DUSSA25기 모두 힘내라 -동치나 △윤경,윤숙 생일 축하한다. -국교99 △준환이 형. 군대간거 축하해~ △재훈(경영99)야, 생일 축하한다. -KATURI △10월 1일, 정일이 생일~ 사랑해. -민석 △10월 3일 개천절, 생물학과 02화번 김현선 생일 축하합니다. △10월 10일, 앞방 여자 생일~! 희영아~ 생일 축하해 -18호 △수고하셨습니다 △쭈, 쉰 도서관에서 밤샘하느라 수고했다. 좋은 결과 받아라. -DUSSA 25기 JOSO △신방과, 학술제 하느니라 수고 많았어 요. 파이팅, 신방!!

△공대 '한소리' 정기공연 멋있었습니다. -정현 △정산대 예뻐03여학우 △제 4회 중문 '진용제' 치러내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열을 여러분, 특히 우리 강아지 수고했다. -주인님 △열심히 합니다 △비록 적은 수지만 우리 열심히 놀할 하자구요. △역교98 옥파무스 꼭 성공해라. -선배가 △민주, 짱은, 태진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올 에이 받아 △올해 임용고시 대박이요! 전원 합격.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 쫄지마! △아리랑, 공연 준비 열심히 하세요~ -늘 후배들을 지켜보는 선배가 △제대후 회규와 태변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에도 쫄그리지 않는 멋진 친구들입니다. 회규야, 태변아. 일 열심히 하고 항상 웃자... 파이팅!! △중도에서 공부하는 불교학생회 멤버들, 합격해요. △민주야, 열심히 해라. 파이팅 !!

△흥대 클럽 모임. 금요일날 빠시다. △영희야, 공부 열심히 해라 -룩기가 △영희오빠 몸 건강하세요. -법대 이쁜이 03 여학우 △10월 10일 라팡공연. 학림관 소강당 6시 많이 오세요. 그리고... △KBN사랑해. △To. HEE...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가 잘못이 많지만 용서해 줘요. 당신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당신이 정말 잘되길 기도합니다. △회계학과 대규(98)야 더 이상 당구치자고 유혹하지 말고 이제 공부 좀 하자. -오늘 한쟁? 허가 △감격 공주님!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돌쇠 △오늘 당구 가르쳐 준다고 하고서...자기 혼자 풀릴 자구...공부도 죄끔 하구, 화내고 미워 △고은아 사랑해.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해서 모두 성 공합시다. △짱은 가을 즐겁게 보냅니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10/6)	쇠고기담양탕 (1500) 닭고치구이 (1500) 제육콩나물볶음 (1500)	돈육두부찌개 (1300) 잡채밥 (1500) 나물비빔밥 (1500)	된장찌개 (3000) 콩나물볶아해장국 (3000) 공치구이 (3200)
화 (10/7)	참치찌개 (1300) 불고기 (1800) 청포묵비빔밥 (1500)	징터국밥 (1500) 오징어가스 (1500) 게맛살볶음밥 (1500)	된장찌개 (3000) 대구찌개 (3200) 떡갈비찜 (3500)
수 (10/8)	꼬치어묵우동 (1500) 김치볶음밥 (1500) 순살돈가스 (1500)	달걀탕 (1500) 주꾸미제육볶음 (1800) 스파게티 (1500)	된장찌개 (3000) 돌솥비빔밥 (3200) 불낙볶음 (3500)
목 (10/9)	북어해장국 (1500) 달걀비빔볶음 (1800) 궁중떡볶이 (1500)	햄숙이찌개 (1500) 참치볶음밥 (1500) 비빔만두 (1500)	된장찌개 (3000) 김치탕 (3200) 꽃게간종 (3500)
금 (10/10)	육개장 (1500) 미트볼케라리스 (1500) 오우리스 (1500)	양치탕 (1500) 돈장조림 (1800) 비지리숙제비 (1500)	된장찌개 (3000) 족살 (3200) 오징어덮밥 (3200)

■ 금주의 추천메뉴 ■

궁중떡볶이(동국관 목요일 석식)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김치를 소금에 절이지 않고 간장으로 절이는 장김치가 유명했다고 한다. 고추장과 고춧가루 대신 간장으로 은근한 맛을 낸 요리로 궁중에서 먹었다는 궁중떡볶이는 쇠고기와 떡, 야채가 잘 어우러져 식사메뉴뿐 아니라 남녀노소 간식으로 좋은 음식이다. 유진영 (동국관영양사)

달하나 천강에



송일호 경제학과 교수

어느 날인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학생과의 대화 중에 자신의 학부에서의 전공결정과정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본인의 말 한 마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일학년 때 원론과목을 수강했을 때 교수님이 이러저러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결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그때 내가 했다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말 한 마디가 그토록 중요한 자신의 전공선택과 그 후 대학원에까지 진학을 하게 된 이유로 작용하게 되었다니 교수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기쁜 마음이 들어야 할텐

스승의 말 한마디

데 오히려 부담감을 지을 수가 없었다. 강단에 서는 교수의 말 한 마디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새삼 숙연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과연 나는 강의 중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표현했었나 하는 반성과 나의 생각을 권위주의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에 동의하기를 강요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내 자신에게 묻게 된다.

사실 본인도 대학 3학년 때 만났던 어느 교수의 말 한 마디가 자극제가 되어 유학을 결심하고 이제는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서게 되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아쉽게도 그분의 인자하신 미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 교수의

말씀에는 항상 진실함과 겸손함 그리고 제자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 있었고 우리 동기를 모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분 곁에 다가갈 수 있었다.

그 분은 아직까지도 교육자로서 나의 우상이요 모델이신 분으로 항상 나의 가슴속에 자리잡고 계시다.

존경하는 스승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어느 장관에 비하면 나는 무척 행운아인 셈이다.

과연 나는 내가 그분에게 느꼈던 그토록 커다란 존경심과 신뢰감의 한 자락이라도 나의 제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분처럼 항상 제자들에게 진실하고 겸손했는가.

문득 그분이 그리워지는 가을날이다.

독자 영화평 - 오브라더스

가족인연 되새길 수 있는 훈훈한 영화

지리멸렬한 액션, 공포 영화들 사이에서 오랜만에 코믹하면서도 훈훈한 점이 느껴지는 영화 한편을 보았다. 그 영화는 바로 '오브라더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상우는 자신과 어머니를 두고 새 살림을 차린 아버지에게 적의를 품은 채 독립한다. 불륜 현장 사진을 찍으며 살아가던 중 아버지의 사망과 함께 아버지의 빛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아버지의 빛을 떠남을 위해 이복동생 봉구를 어렵게 찾아내지만 봉구는 아직 어린데다 '조로중'을 앓고 있었다. 상우는 자기가 어릴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사진기를 아버지에게 줬다고 자랑하는 봉구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대한 증오로 봉구를 괴롭힌다. 급기야 상우는 봉구에게 채무독촉하

는 일까지 시킨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봉구에게 차츰 정을 느끼게 되고, 봉구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병원에서 달려가며 눈물까지 흘린다.

그동안의 코믹영화는 '억지웃음'을 자아내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나 오브라더스는 전례가 없던 '조로중'이라는 희극한 병을 통해 좀더 신선한 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것 같다.

가족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엮여 있어, 서로를 미워하려 해도 결국에는 사랑으로 보듬게 되는 것이다. 비약일지 모르나 이 영화가 사소한 트러블로 가족의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닫힌 마음의 벽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연지 (문과대 영문2)

이라크 국군파병! 왜 반대해야 하는가

최근 이라크파병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파병 반대론자들은 "아무런 명분 없는 더러운 침략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의 고귀한 목숨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파병 찬성론자들은 국익 특히 경제 분야와 한미우호증진을 들며 파병에 찬성하고 있다.

필자는 파병 반대의 입장에서 파병 찬성론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왜 우리가 파병에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첫째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은 정당성이 없는 전쟁이며, 온 세계가 반대하는 국제법을 어긴 전쟁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명분은 이라크가 9*11 테러를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킨다는 것이었다.

군철수와 스스로의 정부수립을 원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이라크를 민주화시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화는 커녕 미국은 친미정권 세우기에 바쁘고, 종전 선언이후 이라크 국민들이 직접 총을 들고 미군을 공격하고, 반미를 외치는 것을 보면 민주화라는 논리는 허구인 것이다.

넷째 파병은 부시의 재선을 도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종전을 선언하고도 사망자가 종전 전 보다 늘어나자 부시의 지지도는 급격히 하락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에게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부시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지난번 파병이후에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위협은 변화된 것이 없다. 미국의 이라크전 수습은 미국의 강경파와 부시에게 더 힘을 실어 주게 되어 한반도 전쟁위기가 더 가중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권력자들은 그 의무를 무시하고 우리의 청년들을 죽음의 땅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

갑자기 일제시대에 한 친일 지주자 자신의 부와 권력의 유지와 위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내용이 기억나는 이유는 왜일까?

차주철 (문과대 1)

'사계절'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자

어느덧 10월이다. 밝은 하늘색을 선명하게 보이며, 이런 날씨엔 야외로 나가서 친구들과 지내기 좋은 날씨이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오려고 한다. 벤치에서 책을 읽고, 수다떨기엔 시원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빛은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을이 왔다고 좋아할 때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당황한다. 밤이면 두꺼운 겨울이불을 꺼내 놓고 덮을 정도로 추워졌다. 그 때 문득 TV에서 들은 '가을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생각났다. 이유는 환경의 변화.

우리는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인지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환경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을 우리는 '복 받은 것'이라 표현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계절 중의 열매의 계절이라 표현할 수 있는 가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봄도 이제 점점 뚜렷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원인이자 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다양한 환경오염을 들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의 폐해가 가장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요즘 정부에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승용차 차주 스스로 요일을 결정해 쉬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 우리학교에서도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차없는 날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우리 환경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나 자신부터 환경을 지켜나가는 의무를 가져야 할 때이다.

유지현 (사과대1)

본 칼럼은 우리 사회, 우리 대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깊이 있는 생각을 담아내기 위해 신설되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기대한다. 편집자



세상읽기

이세주 사범대 국교4

대학, 여기는 어디인가

세상사야 어찌 돌아가든 자연은 정해진 순환의 진리를 이어가는 법이어서 계절은 가을로 성령 다가서고 있다.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진로와 취업, 각종 고시를 앞두고 있는 대학 4학년생에게 있고 싶었던 '여유'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가을하늘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웠다. 잠시나마 풍상에 젖어 있다가 문득 명진관에 걸려있는 축하의 메시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축 공인회계사 22명 최종합격. 일류동국의 선두주자! 나라경제의 미래동량! 동국대학교"

"축하할 일이지 하지만 꼭 저렇게까지 해야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좋았던 기분이 싹 가셨다. 물론 초유의 취업난 속에서 고시에 젊음을 바쳐 공부한 합격생을 축하해 주는 일은 마땅하다.

그러나 도서관 열람실에서 묵직한 고시책, 토익책과 씨름하고 있는 수많은 대학생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22명에 들지 못한 고시생의 좌절과, 이토록 맑은 가을 하늘을 즐기지 못하고 열람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대학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대학교육의 위기는 더이상 대학인의 관심대상이 아니다
그저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자신의 뿌리를 잃고
정신없이 부유하고 마는 것이다

이미 차갑게 식은 담판이 되어버린 대학교육의 위기, 인문학의 위기, 대학의 취업학원으로의 전락 등등은 더는 대학인의 관심대상이 아니다. 강의실로, 도서관으로 학원으로 자신의 뿌리를 잃고 정신없이 부유하고 마는 것이다.

얼마전 국어국문과와 문예창작과에서 준비한 '독 안에 갇힌 쥐들'이라는 연극을 보았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시험을 보는 전도사, 티켓 다방에서 밀린 빚을 다 갚고 여관으로 마지막 '출장'을 나온 퇴물 아가씨,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병원 개업을 위해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에게 자신의 건강한 몸과 머리를 팔아 결혼을 앞둔 의사,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세 인물이 우연히 출구가 없는 같은 공간에 갇히게 되어 벌이는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이 처한 삶의 조건을 여실히 보여준 작품이었다. 그들은 더는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이렇게 물었다. "여기가 어디지?"라고 말이다.

오늘 정체성을 상실한 대학이라는 공간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차갑고 잔인한 가을 하늘 아래서 큰 목소리로 물어야 한다.

"여기가 어디지?"



수화로 사랑 나눠요

사랑과 봉사가 가득한 손짓사랑회 숲 속에는 새들의 화려한 지저귀미 있고 모래사장에는 유쾌한 파도소리가 있지만,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는 숲도, 바다도, 소리 없는 한쪽의 그림입니다.

설령, 그들 앞에서 단 한번이라도 그들의 손과 귀가 되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당신은 사랑입니다.

마음을 전하세요.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수줍은 사랑이 그들에게는 작은 미소가 됩니다.

손짓사랑회가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특별한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학생회관 2층 손짓사랑회로 오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진정한 대학생생활과 마음의 봉사가 시작됩니다

연락처 회장 안문남 016-765-1419

독자광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에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opus(오퍼스)로 오세요"

매주 월, 금 늦은 6시에 학림관 5층에서 연습합니다
주저말고 들려주세요



초심 잃지 않고 정론직필의 한 길로

기자의 역할과 책임 조율해 그늘진 사회의 불 밝히는 기자로

대학에 와서 맞는 첫 방학. 친구들이 수영복을 챙겨 바다로 향할 때 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걸었다. '통일선봉대'의 대원이 되어 17박 18일이라는 긴 여정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학생과 달리 '기자'라는 명칭을 하나 더 달고 피로한 하루의 마지막에도 취재 수첩을 정리해야 했다.



게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기도 했다.

같이 입학한 동기들이 도서관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동안 6·13추모집회에서 사진을 찍고 노동자를 만나 고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거치며 남의 일로만 여겨지던 일들이 어 느새 내게 중요한 고민거리로 자리 잡았

다. 그때부터 주변 일들을 문제의식이 담긴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 또한 누군가 건넨 "난 네가 진짜 대학 생활을 하는 것 같아"라는 말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신문사임을 재확인 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제 신문 만드는 일, 학내의 일 그리고 사회문제를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했던 6개월간의 짧지 않은 수습과정이 끝났다. 정기지라는 명함은 신문사에서의 발언권을 높여 주겠지만 그에 따른 부담감과 책임감이 따르는 '야만의 길'과 같다. 칼을 다루는 명인들은 칼 자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사용법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비로소 무언가를 본다. 앞으로 기자가 말해야 할 목소리와 그에 따른 책임 사이를 잘 알고 적절히 조율해 가려졌던 사회의 진실,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배어내 독자들에게 알리는 열정있는 기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해 본다.

황상상 기자
hjs0228@dongguk.edu

치열한 고민 즐기며 세상과 소통하는 자세 가질 것

대학생이 되면 예쁜 정장차림으로 팔에는 전공서적을 끼고 느긋하게 캠퍼스를 누비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한 '꿈'은 신문사의 문을 두드리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정장대신 편한 면바지를 찾기에 급급했고 전공서적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수첩과 펜이 있었다. 또한 낭만이 넘칠 것 같던 캠퍼스는 이제 달리기 레이스이자 아이টে임을 찾기 위한 공간이 됐다.

더 많은 사람과 더 넓은 세상을 만나기 위해 신문사에 지원했고 기자가 됐다. 하지만 멋있게만 보이던 기자의 업무는 일상을 무겁게 억누르기 일쑤였다. 피 말리는 기사마감과 조판작업,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해지는 내 모습에 지칠 때도 많았다.

그러나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은 평범한 시선으로는 볼 수 없던 또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된 후 가장 큰 변화는 시야의



넓이가 달라진 것이다. 문화부 기자가 돼 처음으로 맡은 외부취재 '민중가요 페스티벌', 두려움과 설레임을 안고 찾아간 그 곳에서 그동안 쉽게 지나치던 무대 뒤 풍경과 관객들의 반응에 민감해진 날 발견했다. 기자가 되기 전에는 객석만이 나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공연장 전체가 내 무대고 취재원인 것이다.

또한 평소 반감을 갖고 있던 누드, 쿼터 등 비주류 문화를 접할 때에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정관념 속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쓴 기사는 독자들에게 더 큰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기자인 내가 먼저 잘못된 사고 방식을 고쳐야 함을 가슴속에 새겼다.

이제 내가 쓴 기사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정기자로 거듭나려 한다. 손수 레이아웃을 그리고 조화로운 것을 찾아낸 뒤 직접 뽑은 제목으로 지면을 완성할 때의 치열한 고민들을 즐길 준비를 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수습기자 기간 동안 '머리'로만 배워 다룬 정기자가 된 오늘부터는 새로운 세상과 '가슴'으로 소통하고 싶다. 잦은 실수가 있어도 용서받을 수 있던 수습이라는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지금, 내 눈과 귀는 더 큰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애정어린 채찍질로 독자의 눈 신문 향하게 만들 것

길을 걸을 때 앞을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난 앞보다는 옆을, 가까운 곳 보다는 먼 곳을 본다. 이는 항상 기사거리를 찾아야 하는 신문사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버릇이다. 지난 6개월의 시간동안 신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작은 생활 습관부터 사고방식까지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질문에 "살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밀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는 네팔 청년의 목소리는 너무도 절박했다. 내가 한국사람인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한 언론에서 그 청년은 거칠게 투쟁하는 불법체류자라면 비취지

고 있었다. 의도대로 여론을 몰고 가는 외국 기사를 보자 언론의 자세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그리고 언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무서워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언제부턴가 언론의 초점이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특종에만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언론의 역할은 사람들을 사회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을 통해 가능하다.

난 독자들이 우리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기사를 쓸 것이다. 잘못된 일을 비판하는 기사라 할지라도 치열한 고민을 토대로 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학교에 대한 사랑고백이 아닐까. 독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내 구아작전은 계속 될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틀' 깨고 높이 날아 멀리 보며 숨김 없는 진실 전할 터

감혀있는 세는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며 살아간다. 나 역시 지난하게 지 임시라는 감옥에 갇힌 한 마리의 새였다.

때문에 대학은 임시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무한한 자유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내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과 언어어 보도되는 시위는 내게 새로운 문제의식을 계속해 던져왔다.

그제서야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게 평온한 사회에 있지 않음을, 이대로의 대학 생활은 새로운 감옥으로 옮겨갈 뿐 여전히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러던 중 눈에 띈 것이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포스터였다.

이렇게 학기초인 3월부터 시작된 나의 신문사 생활은 잠깐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돌아갔다. 백방한 취재 일정과 밀린 청탁, 정해진 기사 마감 시간은 나를 죄어왔고 늦은 귀가 시간 때문에 생긴 부모님과의 마찰은 날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신문사는 그보다 더 큰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날개'를 주었다. 지난 5월 비정규직 노동자 인터뷰를 위해 학생기자라는 배짱 하나로 대학로에 나왔다. "사람답게 살 최소한의 권리를 달라"는 외침을 직접 들었을 때야 비로소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못난 편견에서 벗어났음을

알게됐다. 그 순간 현장에서 배운 그들이 처한 환경과 사회의 모순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에서 솟구쳐 올랐다. 이후 취재를 할 때 누군가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닌 스스로 나서서 현장을 향해 뛰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6개월 간 세미나, 농활 등 신문사의 일정들과 6·13추모대회, 사회 문제 관련 토론회 등 학의 행사들의 경험은 나 자신을 한층 성숙하게 했다.

이제 '서투름'을 용서받을 수 있는 수습이라는 특권을 벗어 버리고 한층 가벼워진 몸으로 높은 창공에 날개를 편다. 그리고 내 이름의 뜻처럼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기사로 세상 멀리까지 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나는 오늘도 독자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첩과 펜을 든다.

설윤진 기자
dbswls@dgu.edu

2004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특별전형 공고

■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경주)학과는 경주캠퍼스에 개설된 학과임.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한문(경주),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신문방송, 경영,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경주), 식품자원경제, 지리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경영,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 식품자원경제, 지리
자연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수학교육, 농, 임, 생물, 조경(경주), 가정, 간호(경주), 생명공학(경주)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수학교육, 농, 임, 생물, 가정, 조경(경주)
공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시스템공, 전자계산(경주), 기계공, 안전공(경주), 정보통신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시스템공, 전자계산(경주), 기계공, 안전공(경주), 정보통신공
예체능계	연극영화, 미술, 체육	연극영화, 체육
의학계	한의(경주), 의(경주)	한의(경주), 의(경주)
학과간 협동과정	멀티미디어 (연극영화, 전자공, 컴퓨터공, 경영) 전자상거래 (경주: 경제, 국제통상, 정보산업)	-

■ 국가지원 연구 프로젝트 사업 및 관련 학과

분야	지원기관	사업단(팀) 및 연구센터	선정(관련) 학과	특 점
인문사회	교육인적지원부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불교학과	장·단기해의 연구 및 학과별 선발 절차를 거쳐 장학금 지급
	학술진흥재단	한국어나키즘 100년 연구팀	윤리문화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학술진흥재단	조선불교통사 연구팀	선학과	-
	학술진흥재단	연행록 노정담사 연구팀	국문학과	-
자연계	과학기술부	양자기반도체 연구센터(SRC)	물리,반도체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소정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과학기술부	멀티미디어기술 연구센터(ERC)	전자공학과	-
	산업자원부	산업용 공중제어밸브 표준화팀	기계공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공학계	산업자원부	생체조직공학기술연구팀	화학공학과	-
	중소기업청	신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과대학 정보산업대학	-
의학계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NRL)	한의학	-

※ 기타 교육부(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의 국가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 대학원생에게는 매월 연구비 지급.

■ 모집인원 : 각 학과별 약간 명

■ 지원자격

1.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4년 2월 취득예정자.
2.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일시 및 방법 : 2003. 10. 18(토) 10:00부터,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시험

■ 전형일정

1. 원서교부 : 2003. 9. 26.(금) ~ 10. 8.(수)
 - (1)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guk.edu/gs)에서 원서를 다운(Down) 받아 지원할 수 있음.
 - (2) 서울캠퍼스 : 학술관 3층 대학원 교학부
 - (3) 경주캠퍼스 : 진흥관 1층 사회과학 대학원 교학부(경주)
2. 원서접수
 - 가. 인터넷 접수 : 2003. 9. 26.(금) ~ 10. 7(화) 17:00시 까지
 - 나. 방문접수 : 2003. 9. 30(화) ~ 10. 8(수) 17:00시 까지
3. 전형일자 : 2003. 10. 18.(토)
4. 합격자 발표 : 2003. 10. 30.(목) 14:00 예정 (대학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제출서류

입학원서(사진 3매),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 평가기 초자료, 추천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초본, 승적확인 서(조계종 재직 승려에 한함) ※ 인터넷 접수자는 입학원서, 학업계획서, 평가 기초 자료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그 외 서류는 전형 당일 구술시험 1시간 전에 진행위원(조 교)에게 제출.

동국대학교 대학원
 www.dongguk.edu/gs
 TEL. 02-2260-3094~5, 3116
 FAX. 02-2260-3685

매체비평

영화편

내추럴 시티

“영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의도 구현 못해 아쉬워”



다양한 특수효과로 한국형 SF를 선보이고자 한 영화 '내추럴 시티'.

민병천 감독의 '내추럴시티'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았다. '시각적인

측면과 특수효과의 측면에서 괄목상대할 성장을 했지만, 이야기 구조는 아직 빈약하다. 이런 평가는 '내추럴시티'를 비롯해서 대개 시각 효과를 강조한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들(예를 들어, '아우렐리아'나 '에스터데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시각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이다. 1991년 '터미네이터2 - 심판의 날'의 특수효과는 한국 영화계에 시각적인 효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T-1000이라 불리는 미래형 로봇은 자유자재로 자신의 신체를 변형시켰다. 이에 자극을 받은 한국 영화계는 고소영이 자신의 얼굴을 구미호로 바꾸는 물평이란 기법을 보여준 '구미호'(1994)를 내놓았다. 이후 '은혼나무 침대'(1996)를 비롯한 다양한 영화들이 특수효과를 사용하면서 시각적인 스펙타클을 강조한 영화들을 만들어냈다. '내추럴시티'는 한국 영화계가 축적한 특수효과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를 받기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측면인 이야기 구조의 빈약성과 직면하게 된다. 이런 비판은 왠지 모든 책임을 감독에게 돌리는 듯한 인상을 지을 수 없다. 물론 감독은 영화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이야기 구조가 취약한 것의 많은 부분은 감독의 책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책임을 모두 감독에게 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 구조가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내추럴시티'의 이야기 구조를 살펴

보자. 이 영화는 4가지 이야기가 매우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R과 리아와의 사랑이야기, R과 노마와의 우정, 시온을 중심으로 한 우울한 미래에서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경무관과 노마 혹은 R과의 관련된 정치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영화는 이 네 개의 이야기 조각을 잘 짜 맞추는데 실패했다. 그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 두 번째 책임은 영화 산업에 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많은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2시간 이내의 영화는 극장에서 6번을 상영할 수 있지만, 2시간이 넘어가는 영화는 5번밖에 상영할 수 없다. 즉 극장 입장에서 보면 영화의 예술성보다는 하루에 6번 상영할 수 있는 영화를 필요로 하며 결국 감독은 자신이 하

고 싶은 이야기를 다하지 못한 채, 영화의 많은 부분을 2시간 안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또한 제작비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적인 압박이 감독에게 가해진다. 다시 말해서 감독의 창의적인 면은 영화의 산업적인 측면에 의해서 크게 제약을 받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영화의 이야기 구조는 관객들의 수준을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 '내추럴시티'의 단점인 이야기 구조의 빈약성을 모두 산업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감독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영화를 산업적인 측면과 더불어 평가하면, '내추럴시티'의 문제점은 좀 더 큰 차원에서 이야기돼야 할 것이다. 정 하 제 호서대 강사

게임 속 가상세계로 “놀러와~♪”

동네에 한 두개쯤 있던 오락실은 과거 동네 꼬마들의 작은 '일탈구'였다. 유난히 큰 효과음과 뽀뽀한 조종기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수단이었다고, 주인공은 또 다른 자신으로 여겨졌다. 이처럼 게임은 자기 자신과 현실에 대한 판타지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중독성까지 획득한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자 사람들은 반복되는 메뉴얼에 염증을 내고 '반응하는' 상태를 원했다. 이러한 욕구를 해소해준 것이 바로 기술의 발전을 타고 우리 곁으로 온 '온라인 게임'이다.

지난 98년 시작된 '스타크래프트'의 열풍은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 자극을 주었다. 이후 온 라인 게

임 산업은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키웠고 지난해는 69%라는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보였다. 이제 온라인 게임은 일부 청소년들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인 문화 장르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야말로 '열풍'

하지만 게임이라는 장르가 가진 중독성은 학생들의 공부할 시간, 직장인의 일할 시간을 빼앗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게 사실이다. 또한 일부 게임에서 채팅창을 도입하면서 이용

자간에 오가는 선정적 대화와 게임 아이템 현황 거래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는 게임을 현실처럼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게임 운영업체들이 사

온라인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면서 점점 해소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문화는 어느 정도 안정기를 맞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자체 소프트웨어를 통한 게임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된 게임이 '도박'을 차용해 유행하는 지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게임들이 실제 도박자를 줄였다는 수치화 된 근거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 게임이 지닌 산업적 경쟁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온라인 게임 산업은 어느 문화산업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 우위를 차지하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외화벌이 외에도 우리가 경험한 '스타크래프트' 열풍과 비슷하게 수출국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게임은 태국에서 심각한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를 야기하면서 태국정부로 하여금

'야간시간 게임서버 봉쇄'라는 강력한 처벌을 세우도록 했으며, 얼마 전 미국 서버에 이북 국적을 가진 4명의 이용자가 등장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질적 발전 도모해야

온라인 게임 산업은 만화, 소설, 캐릭터, 방송까지 다른 문화산업과의 연계성이 강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다. 때문에 지속적인 육성정책과 함께 관련 업계의 규모는 점점 커질 전망이다. 단 그 방향키는 이용료 증가 등 상업성이 치우쳐진 양적 발전이 아닌 끊임없는 이용자 연구와 기술 도약에 따른 질적 발전에 맞추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서는 '피가 나온다고 18세 이상이나'는 불명확한 등급 분류 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온라인 게임 사전 등급제' 자체가 온라인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허물로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ylene@dongguk.edu

'뮤' 제작사 웹젠을 다녀와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이용자 욕구 가장 우선시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이 현재 즐기고 있는 게임의 제작과정에 관한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고자 현재 게임 '뮤'로 동시 접속자수 6만 4천 명을 기록하며 온라인게임 대표 회사로 손꼽히는 '웹젠'에 찾아가 게임의 제작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획 아이디어 회의는 한편의 게임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먼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원탁에 삼삼오오 모여 회의를 진행 중인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다. 전체 작업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기획 회의는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과 문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에 따라 게임 '뮤'는 시각적인 효과와 캐릭터를 통한 임무완수, 아이템 획득 등의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신세대들을 위한 아바타 제작에 중점을 두었다.

기획과정이 마무리되면 개발팀에서 게임의 기술적 부분을 담당한다. 모니터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가상세계는 이 과정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먼저 그래픽 담당자들이 2D그래픽과 3D그래픽으로 나눠 캐릭터를 정하고 그림을 그린 뒤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한다. 그 후에는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들이 게임 세계 속에서 이용되는 아이템, 줄거리 등의 세부사항들을 제작한다. 또한 하드웨어적 기능의 서버프로그래머들은 컴퓨터의 용량, 선 등의 외부적 문제를 담당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편의 게임이 제작되면 베타테스터 등 게임 전문가들이 시범적으로 게임을 운영해보는 클로즈베타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오픈베타를 실시한 뒤 상용화가 이루어진다.

운영팀에서는 사용자들의 서비스를 위해 질문에 댓글을 달고 콜 센터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혜수 홍보실장은 "사이버 윤리는 온라인 게이머들의 기본 에티켓으로 게임 속 세계에도 신뢰는 존재해야 해요"라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게임만의 장점인 게임 시스템에 업그레이드하는 패치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게임 이용자들과 개발자들간의 소통 또한 게임 제작의 한 과정이 되고 있다.

이제 이용자들도 게임을 즐기는 것 뿐 아니라 제작과정의 한 일원으로 게임 속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됐다. 자신이 원하는 판타지의 세계가 PC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재미까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아이템 테트리스

"아이템 하나로 승패 좌우돼 스틸 만점"



박혜민 (사과대1)

박혜민(사과대 1) 양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은 게임포털 사이트 넷마블의 '테트리스'. 그가 넷마블의 다양한 게임 중에서도 굳이 이 게임을 즐기는 이유는 특별한 기술 없이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즐기는 아이템 테트리스는 팀을 나눠 서로 아이템으로 공격하는 방식인데, 하나의 아이템으로 인해 승패가 좌우되는 스틸이 있어요."라는 그의 말처럼 테트리스는 다양한 공격 및 수비 아이템으로 게이머들의 긴장을 북돋운다.

또한 아가자기한 캐릭터와 디자인은 테트리스가 여성이나 학생에게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학교에서 만나기 힘든 친구를 온라인 상에서 만나 편을 나

뉘 게임을 즐기는 것은 온라인 게임의 또다른 장점. 박 양은 "레포트를 쓰다가도 메신저에서 만난 친구들 6명 정도를 모아 테트리스를 하면 그 재미를 두 배로 느낄 수 있어요."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 오프라인에서만 만나는 친구들과 또다른 우정을 쌓는 것 같다."고 말한다.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한두시간까지 게임을 한다는 박혜민 양에게 짧은 시간동안 즐기는 온라인 게임은 커다란 '휴식'이다.

워크래프트3

"전략 공유·화려한 영상 재미 업그레이드"

요즘 PC방에서는 게임이 아닌 단순히 인터넷만 하러 온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게임 전용 PC에서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홍진우(정보통신공학 3)군 역시 분고 근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온라인 게임을 즐긴다.

그가 추천하는 게임은 요즘 새로 나온 '워크래프트3'. 워

크래프트3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게이머가 직접 전략을 짜서 가상으로 전투를 진행해 나가는 게임이다.

홍 군은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팀플레이로 진행해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더 재미있는 게임이에요."라며 "3D영상의 화려한 그래픽과 웅장한 효과음, 그리고 자기만의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워크래프트3가 가진 매력"이라고 말하며 게임의 특성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는 PC방에서 주로 게임을 즐긴다.

워크래프트3는 볼플레이 방식과는 달리 한 게임 단위로 정해져 있어 게임을 끝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PC방에서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연)

mh705@dongguk.edu

메아리

친북 스캔들

▲"...통하였느냐?" 아뭏든 표정의 주인공들과 묘한 상상이 덧칠해지는 문구. 이는 최근 개봉된 영화 '스캔들'의 포스터 장면이다. 조선시대의 통념을 뒤엎는 설정으로 '요부와 바람둥이의 정절녀 무너뜨리기 과정'을 담았다는 스캔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화 중 단연 톱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이 통(通)했다는 말인가. 37년만에 고국 땅을 밟은 재독 사회화

자 송두를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송 교수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다. '그가 북한으로부터 거액의 공작금을 받았다'는 등 여러 의혹들이 난무한 가운데 과연 그가 북한과 어떻게, 얼마나 '통(通)했는지'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송 교수와 관련한 이러한 논란은 애초 짐작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증폭됐고, 진실을 판단할

겨를조차 없이 확대됐다. 사실상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송 교수를 향한 맹공의 선두에 선 한나라 당과 보수 언론들이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건국 이후 최고위급 거물 간첩 사건"이자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또다시 마녀사냥을 위한 총구를 겨눴다. 심지어는 "정부에 간첩연루자가 있다"는 근거가 불명확한 발언이나 보도도 서슴지 않는 등

정치적 이념 공세도 퍼붓고 있다. ▲분단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송 교수가 노동당 입당 여부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을 침묵, 부인해왔던 점이 밝혀진 지금의 상황은 당혹감과 충격 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이북 땅에서 남북의 화해를 위해 학문적·실천적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 역시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 그를 37년간 이방인으로 대하며 고국 땅을

밟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우리가, 이 땅의 실정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성을 강요하고 비난할 권리가 과연 있을까. 여론의 묘한 상상을 부추기고 덧칠하는 색깔공세로, 민주화를 뒤엎는 냉전적 논리로 '경계인'을 무참히 무너뜨리는 '스캔들'에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하는 걸까. 반문해볼 필요가 있을 지 모른다. 한보라 편집장 hviolet@dongguk.edu

빛으로 그린 세상



엷혀 있는 전기줄 같은 바쁜 일상에 바로 위에 다가온 가을 하늘을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그리워집니다.

- 지난 3일 가을 하늘 아래서

김진성 사진부장 yearn@dongguk.edu

동아리·소모임 탐방 - 자연과학 연구회 'NSA'

밤하늘에 띄운 나만의 별과 대화해 보셨나요?

세미나 통해 이론 쌓고 한 달에 한 번씩 치악산 등으로 관측회 떠나

생텍쥐 베리의 소설 속 주인공 어린왕자와 같이 자신만의 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가. 바로 여기 소행성 B612처럼 자신만의 별을 간직하고 있는 또 다른 '어린왕자'들이 있다. 1984년 5명의 이과대생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자연과학연구회 NSA(Natural Science Association)의 회원들이 그들이다.

초창기의 NSA는 자연과학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회원들의 관심분야가 천문학에 집중되면서 전문적인 천문학 동아리의 성격을 띄게 됐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이면 학생회관 3층에 있는 동아리방에 모여서 세미나를 진행한다. 신화와 연결시켜 알아보는 계절별 별자리나 유성우, 성구 등 주로 천문학 이론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세미나는 본격적인 별자리 관측을 위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초를 쌓고 난 후, NSA의 회원들은 직접 별자리 관측을 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원주 치악산이나 양평 용문사로 관측회



학생회관 3층 동아리방에 모인 NSA 회원들.

를 떠나다. "아직도 처음 관측회를 갔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밤하늘을 본 기분이었요."한 회원의 말처럼 땅에 누워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빈틈없이 박혀 있는 별들을 한번이라도 보게 되면 좀처럼 그 감흥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이 회원들이 말하는 NSA만의 매력이다.

하지만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일인만큼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다. 기상청의 예측과는 달리 구름이 너무 많이 끼거나 날씨가 갑자기 흐려져 관측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 재정이 여의치 않아 그동안 제대로 된 망원경이 없었던 것도 애로사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오는 11월쯤에는 그동안 모은 자금과 졸업한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망원경을 구입할 예정이다. "망원경으로는 성운이나 성단도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사진촬영을 해 작품전도 열 계획이에요"라고 말하는 한 회원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별을 보며 행복해 하는 우리주위의 '어린왕자'들이 앞으로 그 순수함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새 소식

쏟난 그리움



6·70년대 우리나라의 풍경은 전통과 근대화가 기묘하게 공존하던 시대였다. 이 책은 기성세대의 추억을 소재로 현재 우리 모습을 들여다본 산문집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지난해 경향신문에 연재됐던 저자의 '김택근의 책과 세상-숲정어에서'를 묶은 것이다.

사람, 자연, 세상, 문명에 관해 이야기 하는 이 책은 간결한 문체로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차분히 풀어냈다. 글 중간중간에 실린 사진 역시 책의 운치를 더한다.

김택근 저/ 꿈엔들/ 9천 500원.

지상에 순가락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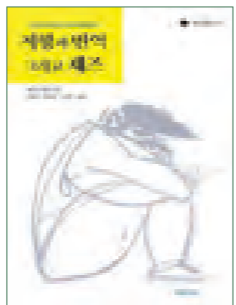
중견작가 현기영의 자전적인 새 장편소설이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 다룬 이 소설은 유년 시절의 추억과 현대사를 겪은 가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죽음에서부터 시간을 거슬러 유·소년기를 회상하는 성장소설 형태로 이뤄져 있다.

유채꽃이 만발한 제주도 풍경과 섬을 벗어나 고된 소년의 꿈, 그리고 아버지와 감성적 대립이 저자의 섬세한 필체를 통해 서정적으로 표현됐다.

현기영 저/ 실천문학사/ 8천원.

저항과 반역 그리고 재즈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로 평가받는 에릭 홉스봄의 에세이와 서평 등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에 주목하며 그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접근한다. 이를 통해 그

들이야말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역사의 비범한 주역임을 접한다.

역사를 풀어냄에 있어 사회주의, 농민운동, 재즈예술가 등 역사, 정치, 예술을 총망라한 점이 돋보인다.

에릭 홉스봄/ 영림카디널/ 1만 8천원.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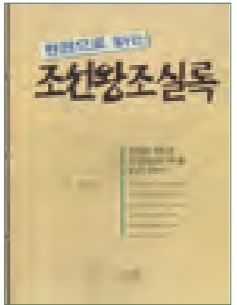
제8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인 이 소설의 화자는 인천을 대표했던 '삼미 슈퍼스타즈'라는 야구팀의 마지막 팬클럽이라고 말한다.

삼미 슈퍼스타즈 팀을 둘러싼 소소한 사건들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재미있게 표현했다. 또한 엘리트 학생복지, 국공 81, 맨스그룹 돌리스 같은 소

품들을 등장시킴으로써 복고풍을 더욱 살렸다. 늘 패배하는 야구팀의 모습을 보며 웃음과 함께 연민의 감정이 묻어나는 이유는 소설 저편으로 고단한 우리네 삶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박인규/ 한겨레신문사/ 8천 500원.

조선왕조실록



세계적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한 권으로 소화한 책. 태조 이성계부터 순종까지 조선의 역사와 함께 임금 계보도, 야사 등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의 세계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 유익하다.

역사서보다 교양서에 가까운 이 책은 어려운 한자나 주석이 없어 누구나 쉽게 방대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왕조에 따른 중요 사건들만 뽑아 엮었기 때문에 책 한권을 통해 상당량의 역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박영균 저/ 들녘/ 1만원.

법화경



'경중의 왕'이라 불리는 법화경을 무비 스님이 번역한 책이다.

법화경은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사경된 경전이다.

또한 쉬운 문체로 씌여 경전은 무조건 어렵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깨어준다.

이 책을 통해 불교의 본질과 인간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무비 스님 저/ 불광출판부/ 8천원.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1359호 정답 grid with numbers 1-13 in various cells.

세로열쇠

- 1. 동아리 연합회가 주최하는 가을 축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됨.
3.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상세하게 적은 글. 이정재가 주연한 영화 제목이기도 함.
4. 질 들뢰즈가 유형화시킨 탈 근대적 지식체계. 학술면 참조.
6. 온라인 상태에서 다른 이용자와 경쟁하며 즐기는 게임. 문화테마면 참조.
8. 책 속 낱말이나 사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순서로 배열해놓은 목록.
9. 둘 이상의 것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뽑음.
12. 결합이 있는 제품을 제조사가 자체 수거해 교환·수리해주는 제도를 O O제라함.
13. 다음해까지 특소세 비율이 8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기초 식품. 사회면 참조.

가로열쇠

- 1. 일반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한집에서 같이 사는 것을 의미. 기획면 참조.
2. 혼인 전 이성과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이에 대한 의식변화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4. 물자를 얻기 위해 체력이나 정신을 씀. 학술면 기사 중 O O 허가제에 대해 다룸.
5.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함.
7. 석영(石英)의 다른 말. 아무진 사람을 비유해서 쓰는 말.
10. 바위가 한 줄로 배치된 스케이트로 롤러블레이드라고도 부름. O O 스케이트.
11. 학생복지위원회가 분교 주변 숙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 예정인 책자 이름은 남산O O O. 보도면 참조.

1359호 정답

1359호 정답 grid with words like 행자부, 샬분, 케, 정년실업, 유즈, 출명, 니, 영어제국, 티, 램경, 면접, 목요일.

당첨자

이익성(창업지원단) 문명경(역교4)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본사 총무부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지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10월 27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Large advertisement for Dongdaewon University featuring a hand holding a paper airplane and the text '당신의 꿈과 이상 도전해야 날아 오를 수 있습니다' (Your dream and ideal, you must challenge to fly). It includes details for the 18th Dongdaewon Academic Award.